www.stylechosun.co.kr

11

November 2026
vol. 311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Time to Watch

The Icon Jennie in Moncler Re/Icons



PIONEERS IN

MONCLER

With Extraordinary Dreams


CHANEL



HISTORIQUES 222
Reference 4200H, yellow gold
Calibre 2455/2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Contents

NOVEMBER 2026 / ISSUE.311

08_SELECTION 포근한 소재와 따뜻한 색감으로 온기를 더해줄 룩을 제안한다.

10_SELECTION 찬 바람을 막아줄 포근한 소재의 윈터 아이템.

12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4_도쿄의 사진 축제가 만들어나가는 관계의 플랫폼 올해로 8회를 맞은 T3 포토 페스티벌 도쿄(T3 PHOTO FESTIVAL TOKYO)는 오피스 빌딩과 상업 시설, 공공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며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이번 축제는 사진을 도시의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사진을 둘러싼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시를 넘어 작품의 유통과 인적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며 사진 생태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온 T3. 축제로 시작한 창립자의 구상은 어떻게 사진기와 갤러리, 관객을 잇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왔을까.

17_SO PRECIOUS 브레이슬릿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주얼 워치.

18_BORN TO PIONEER 정해진 길을 따르는 자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는 극명한 차이를 만든다. 몽클레르가 브랜드의 산악 헤리티지와 선구자 정신을 재해석한 리아이콘 컬렉션을 선보이며 시대를 초월한 세 아이콘 제니, 셰어, 그레이스 존스와 함께 선구자 정신을 재조명한다.

22_LA BOHÈME 새로운 시즌을 여는 매혹적인 믹스 매치. 에트로의 럭셔리 보헤미안 무드.

28_HERE AND NOW 기존 틀에서 벗어나 예상 밖의 조합으로 새로운 미학을 제안하는 미우미우의 2027 S/S 컬렉션.

29_WINTER AFFAIR 완성도 높은 소재와 디테일에 집중한 한섬이 제안하는 겨울 위시 아이템.

30_GET THE LIST 형태와 질감은 달라도 레드가 지닌 존재감은 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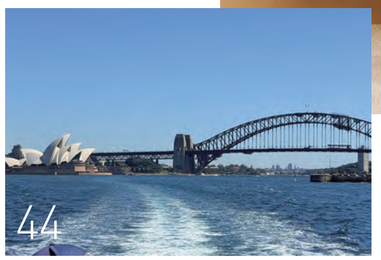
32_TIME CODE 강렬한 컬러부터 정교한 워치 메이킹, 주얼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자인까지. 올 하반기 주목해야 할 워치 트렌드를 담은 13개의 타임피스.

42_재료는 어떻게 아름다움이 되는가 이와테현은 호텔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브랜드인 아만(Aman)을 창립한 아드리안 제자가 새로운 리조트를 선보인 곳이다. 이와테현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속 풍경과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상상하며 도호쿠 신칸센에 몸을 싣고 모리오카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이와테산을 바라보는 고이와이 목장에 자리한 아즈마 팜 고이와이(AZUMA FARM Koiwai). 아즈마(東)는 동쪽이라는 뜻이다. 더 동쪽으로 향한 여정 끝에 일본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났다.

44_도시와 자연 사이에서 회복하는 몸과 마음 눈부신 해안과 광활한 자연, 일상 곳곳에 스며든 웰니스 문화.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자연의 고요함을 오가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을 소개한다

46_EDITOR'S PICK 찬 바람이 부는 계절, 지금 주목해야 할 뷰티 리스트.







몽클레르에서 아카이브 속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몽클레르 리아이콘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글로벌 아이콘 제니가 참여해 메종의 탐험가 및 선구자 정신을 강조했다. 제니는 블랙 컬러의 몽클레르 리아이콘 카라코롬 재킷을 착용해 독보적인 무드를 완성했다. 문의 0030-8321-0794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은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뉴스,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도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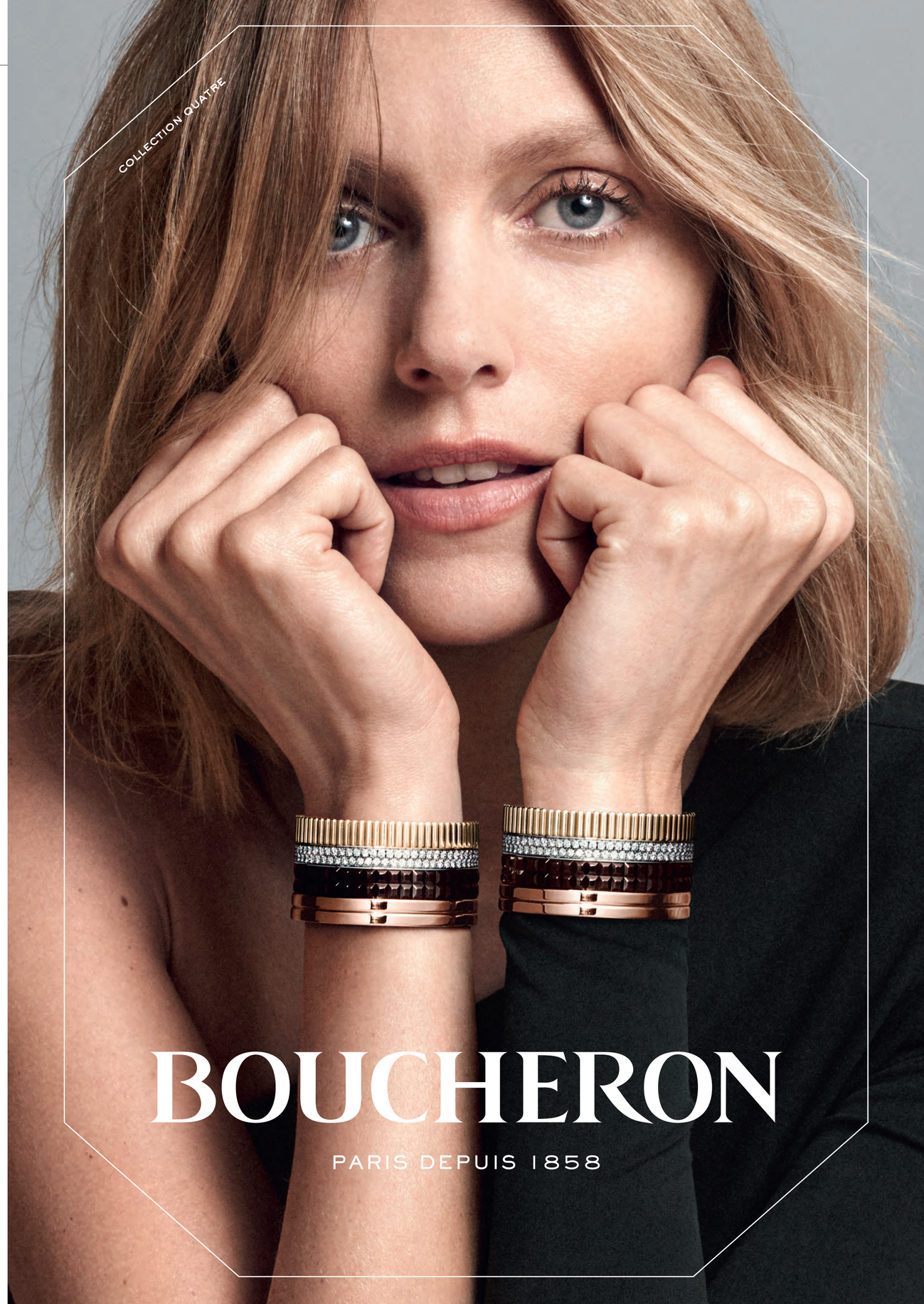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얀 khy@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i@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지현 sjkjh00@gmail.com **디자인** 나나바나스튜디오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왁스 처리한 램 시어링 소재에 포인트 칼라와 버튼을 더한 코트 1천3백95만원 **랄프 로렌 컬렉션**.



둥글게 잡아 올린 챙이 특징인 래빗 퍼 소재의 버지니아 햇 1백56만원 **로로피아나**.



리본의 유려한 곡선을 따라 총 2.31캐럿의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틸다의 보우 링 가격 미정 **그라프**.

빛에 따라 은은하게 반짝이는 다이얼이 돋보이는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빠를리 워치 23mm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사슴가죽 소재와 캐시미어의 서로 다른 질감이 어우러지는 니트 장갑 가격 미정 **아뇨나**.



메리노 울과 캐시미어 소재에 H 모티브를 더한 어벌로 H 쇼우우 블랭킷 가격 미정 **에르메스**.



핑크 그러데이션 렌즈와 볼륨감 있는 아세테이트 프레임이 돋보이는 선글라스 가격 미정 **미우미우**.



아이보리 컬러에 입체적인 로고 패턴을 적용한 쇼츠 1백41만원 **몽클레르**.



핑크 퍼에 모노그램 모티브를 더한 네오 모노그램 핑크 스카프 4백60만원대 **루이 비통**.



버클과 스터드로 포인트를 준 소가죽 벨트 79만원 **에트로**.



부드러운 털의 질감이 돋보이는 송아지가죽에 T 골드 톤 메달로 장식한 핸드백. 26×18×13cm, 4백84만원 **토즈**.



로고 장식의 버건디 레더 소재 나소 여권 슬리브 케이스 25만원 **투미**.



18K 옐로 골드 링크에 아코야 진주를 세팅한 티파니 하드웨어 미디엄 이어링 5백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라운 스웨이드와 포근한 양가죽을 매치한 호간 크로스원드 스니커즈 78만원 **호간**.

for her Selection

지금 이 계절, 퍼 코트부터 머플러와 스니커즈까지, 포근한 소재와 따뜻한 색감으로 온기를 더해줄 룩을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KIM YOU TAE**

스타일리스트 **이승은** 에디터 **신영림**

에르메스 02-542-6622 **투미** 02-539-8160 **그라프** 02-3213-2194 **로로피아나** 02-6200-7799 **루이 비통** 02-3432-1854 **미우미우** 02-541-7443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티파니앤코** 02-6250-8620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몽클레르** 0030-8321-0794 **아뇨나** 02-3449-5942 **에트로** 02-3446-1321 **토즈** 02-3448-8233 **호간** 02-540-0523



18K 화이트 골드에 블랙 하이세람과 다이아몬드를 더한 라지 올루 이터너티 네크리스 8백45만원 **키린.**



가죽과 울 소재에 니트 커프스를 매치해 손목까지 감싸는 워크맨 글러브 38만원 **캐나다구스.**



차분한 그레이 컬러와 간결한 밴드 장식이 어우러지는 울 파나마 햇 가격 미정 **아뇨나.**



빈티지 우드 베이스와 한지 갓이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테이블 램프 1백65만원 **이스트 에디션.**



다양한 크기의 체크와 스트라이프 패턴을 패치워크처럼 배치한 울 소재 집업 스웨터 가격 미정 **로에베.**

for him Selection

도톰한 니트와 코듀로이 팬츠, 패딩 부츠 등
찬 바람을 막아줄 포근한 소재의 윈터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YOU TAE**

볼륨감 있는 나일론 혼방 및 PU 소재의 갑피에 비브람 메가그립 트레드로 접지력을 높인 알티브 미드 스노우 부츠 1백20만원 **몽클레르.**



티타늄과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사각 케이스가 돋보이는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39mm 가격 미정 **태그호이어.**



간결한 플래티넘 밴드에 0.0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트리옹프 드 쇼메 링 가격 미정 **쇼메.**

그레인 가죽에 입체적인 패턴 디테일을 적용한 네버 스틸 더플백. 50×34×22cm, 가격 미정 **리모와.**



울과 실크 소재에 GG 패턴을 더한 자카드 담요 1백20만원대 **구찌.**



크로커다일 엠보싱 가죽 보디의 라지 초보타 불 라이터 50만원대 **생 로랑.**



레터 오프너 메탈 장식이 포인트인 카프 스킨 벨트 1백35만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다듯함을 배가해줄 시어링 소재의 세미 스트라이프 패턴 팬츠 가격 미정 **에트메스.**



브라운과 베이지 컬러의 스웨어 패턴이 돋보이는 울 소재 자카드 체크 쿠션 1백25만원 **보테가 베네타.**

이스트 에디션 070-8129-1111 **구찌** 02-3452-1521 **리모와** 02-546-3920 **생 로랑** 02-3438-5700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쇼메** 02-1670-1180 **키린** 02-2118-6228 **태그호이어** 02-3479-6021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로에베** 02-3479-1785 **몽클레르** 0030-8321-0794 **캐나다구스** 1644-6862 **에르메스** 02-542-6622 **아뇨나** 02-3449-5942

스타일리스트 **유용아** 디렉터 **김새라**



qeelin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2F,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F

qeelin.com

INSIGHT



Warm Essential

추운 계절이면 특유의 텍스처와 보온성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시어링 부츠. 샤넬은 올겨울 컬러 블로킹과 블랙 샤넬 로고에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퍼 폼폼 디테일을 적용한 부츠를 선보인다. 서로 다른 컬러의 대비가 경쾌한 인상을 자아내고, 풍성한 시어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미디 길이로, 니트와 울 코트 등 겨울철 대표 아이템과 매치하면 따뜻한 분위기를 한층 살릴 수 있다. 샤넬 시어링 부츠로 포근한 겨울 스타일을 완성해보자. 문의 080-805-9628





A Modern Tribute

1980년, 위블로 창립자 카를로 크로코는 골드 케이스와 러버 스트랩을 조합한 워치를 선보이며 워치메이킹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그로부터 46년이 흐른 지금, 위블로는 브랜드의 출발점이 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클래식 퓨전 트리뷰토를 선보인다. 오리지널의 미학을 유지하면서 지난 46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반영해 정교하게 완성했다. 골드 케이스와 블랙 러버 스트랩, 간결한 다이얼 등 오리지널의 핵심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케이스 지름은 기존 36mm에서 38mm로 확대했다. 베젤에는 12개의 동형 스크루를 배치했으며, 인덱스를 생략한 다이얼과 3시 방향의 날짜창으로 절제된 인상을 완성했다. 블랙 라인드 러버 스트랩은 외부로 드러난 러그와 연결되며 케이스와 스트랩이 이루는 구조적 미감을 강조한다.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각각의 소재에 어울리는 다이얼 마감으로 차별화했다. 두 모델 모두 셀프 와인딩 방식의 HUB1711 매뉴팩처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약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02-540-1356

Beyond the Archives

몽클레르가 브랜드의 산악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리아이콘(Re/Icons)' 컬렉션을 선보인다. 1950년대 산악 원정부터 1980년대까지 브랜드 역사와 함께한 아이코닉 디자인을 새롭게 풀어냈으며, 특히 남성 컬렉션은 실용적인 디테일과 여유로운 실루엣이 돋보인다. 울 소재를 활용한 리버시블 패딩 베스트 '팀(Tibb)'은 날씨에 따라 다양한 레이어링이 가능하며, 빈티지 핀에서 영감받은 메달 로고로 포인트를 주었다. 가벼운 마이크로 코튼 소재의 '베로네(Verone)' 재킷은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는 후드와 어깨에 걸쳐 착용할 수 있는 내부 서스펜더를 갖춰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컬렉션은 아우터웨어를 넘어 티셔츠와 팬츠 등 레디투웨어까지 확장해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스타일을 제안한다. 문의 0030-8321-0794



보헤미안 감성의 뉴 아이콘

에트로가 2026 F/W 시즌을 맞아 스웨이드 소재의 칼리스페라 백을 선보인다. 그리스어로 '좋은 저녁'을 뜻하는 칼리스페라는 유연한 실루엣과 긴 태슬 장식이 특징이다. 다크 브라운 스웨이드에 톤온톤 자수를 놓은 패치 장식으로 에트로 특유의 보헤미안 감성을 담았다. 양옆으로 늘어지는 브레이드 드로스트링과 풍성한 프린지 태슬이 눈길을 끌며, 같은 톤의 가죽 핸들을 달아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멜 수 있다. 다크 브라운과 캐멀, 두 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3백만원대 문의 02-3213-2494

(위부터 차례대로) **입생로랑 뷰티 러브누드 립 블러셔 06 노티 핑크** 실버 가신으로 로고를 적용한 핑크 케이스가 돋보이며, 핑크 컬러가 입술에 생기를 더하고 발베리와 블랙 커민 시드 등 케어 성분이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3g 5만9천원. 문의 080-835-0089 **프라다 뷰티 프라다 터치 크림 투 파우더 컬러 P75 틀립** 아이코닉한 프라다 로고를 케이스에 새겼으며 블러셔 및 립에 사용할 수 있는 크림 제형으로, 부드럽게 발리고 보송하게 마무리된다. 3.5g 6만원대. 문의 080-522-7199 **크리스찬 디올 뷰티 미스 디올 멜트-인 핸드크림** 미스 디올의 아이코닉한 하운드투스 모티브를 핑크 케이스에 담았다. 센티폴리아 로즈 워터를 함유한 크림이 손을 촉촉하게 가꾸고, 블루밍 부케의 플로럴 향을 은은하게 남긴다. 50ml 8만9천원. 문의 080-342-9500 **지미추 퍼퓸 아이 원 추 위드 러브 EDP** 핑크 보틀을 골드빛 JC 모노그램으로 장식했다. 상큼한 라즈베리와 만다린에 풍성한 플로럴 향이 이어지고, 바닐라와 샌들우드, 머스크가 부드러운 향을 남긴다. 100ml 14만2천원대. 문의 080-550-0010 **메종 프란시스 커정 아 라 로즈 센티드 핸드크림** 다마스크 장미와 센티폴리아 장미가 어우러져 머스키 플로럴 향을 전한다. 가볍고 산뜻한 제형이 끈적임 없이 스며들어 손을 매끄럽게 가꾼다. 70ml 가격 미정. 문의 1644-449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My Sweet Winter

부드러운 파스텔부터 선명한 핑크까지, 소장하고 싶은 핑크빛 뷰티 아이템.



Soul of Racing

태그호이어와 포뮬러 1 팀 레드불 레이싱과의 파트너십이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태그호이어에서는 '포뮬러 1 솔라그래프 X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Formula 1 Solargraph X Oracle Red Bull Racing)' 스페셜 에디션을 공개했다. 지난 10년간 두 브랜드는 팀의 챔피언십 우승을 함께했으며 트랙 위 주요 순간을 타임피스에 담아왔다. 이번 포뮬러 1 솔라그래프 X 오라클 레드불 레이싱 스페셜 에디션은 레이싱을 하나의 문화이자 정체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대의 감성을 담아냈다. 매트한 마감의 지름 38mm 샌드 블라스트 스틸 케이스에 TH-폴라라이트 소재의 블루 양방향 회전 베젤을 적용해 입체감을 주고, 팀 레드불의 상징적인 블루 선레이 다이얼과 레드 미닛 트랙으로 선명한 대비를 주었으며, 화이트 슈퍼-루미노바®를 채운 인덱스, 옐로 초침과 날짜창으로 개성을 부여했다. 케이스 백에는 팀 로고와 체커드 플래그 패턴을 새겨 특별함을 더했다. 빛만으로 구동하는 쿼츠 무브먼트인 솔라그래프 칼리버 TH50-00을 탑재했으며, 팀 컬러와 로고를 적용한 스페셜 패키지와 함께 제공한다. 문의 02-3479-6021



Color Conversation

부쉐론은 진귀한 보석을 금고에 보관하는 대신 직접 착용하고 드러내며 그 가치를 자유롭게 누리는 데 주목한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색의 대화(Color Conversation)' 캠페인은 유색 보석과 메종의 헤리티지를 기념하며 하이 주얼리의 전통적 디자인 코드를 과감하게 재해석한다. 루비와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 각기 다른 색채를 지닌 보석과 그래픽적 실루엣이 어우러지고, 이를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태도가 주얼리의 매력을 한층 부각한다. 색채를 통해 하이 주얼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부쉐론의 비전을 만나볼 차례다. 문의 080-822-0250





(위부터 차례대로)
다미아니 벨 에포크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세팅해 포인트를 준 테니스 스타일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프레드 뱅 드 쉬크르 스위스 블루 토파즈 옐로 골드 링
스위스 호수 빛깔을 연상시키는 카보숑 세이프의 블루 컬러 토파즈 주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볼륨 링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포멜라토 누도 네크리스
스카이 블루 및 런던 블루 토파즈와 화이트 다이아몬드까지, 각각의 스톤이 돋보이도록 기하학적으로 배치한 네크리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피아제 포제션 링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회전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그린 차보라이트, 블루·옐로·오렌지·핑크·퍼플 사파이어, 핑크 루비를 세팅해 다채로움을 선사하는 링 2천6백만원대. 문의 1877-4275
티파니 식스틴 스톤 전설적인 디자이너 잔 슐럼버제가 고안한 컬렉션으로 18K 골드 및 플래티넘 소재에 다이아몬드와 차보라이트를 번갈아 세팅해 유니크한 감성을 전하는 링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반클리프 아펠 플레르 드 하와이 링
컬러 스톤을 향한 메종의 미학을 반영한 컬렉션으로, 아쿠아마린으로 완성한 6개의 꽃잎과 센터 다이아몬드로 마무리한 링.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성정민**

Colorful Mood

농익은 과일과 푸르른 잎사귀 등 자연의 독특한 결과 색감을 지닌 오너멘탈 스톤 주얼리의 향연.

FESTIVAL

음악 너머의 감각, 하슬라가 넓힌 예술의 지평

바다와 소나무로 이름난 강릉의 가을, 세 번째 하슬라국제예술제가 음악으로 여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주제는 '사랑과 우정'.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국악과 무용, 일루션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든 축제는 10월 25일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아드리앙 페뤼숑이 지휘하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이날 무대 '사랑에서 열정으로'에서 오케스트라는 드뷔시의 '바다'와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를 연주하고, 백건우는 직접 고른 뱅상 댕디의 '프랑스 산골 선율에 의한 교향곡'을 협연했다. 자연의 소리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음악이라고 말해온 피아니스트의 선곡과 담백한 연주는 축제의 마지막을 더욱 뜻깊게 했다. 공연 전날 밤, 경포의 바다에서는 작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바다를 스치는 바람에는 소나무 향이 실려 있었다. 얼마 전 소나무가 빽곡한 일본 이와테현의 산골을 다녀온 터라, 음악을 듣는 동안 그곳의 숲과 경포의 물결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때로 소리는 풍경을 그려내고, 청각을 넘어 기억과 후각, 시각까지 불러낸다. 음악 속 풍경에 저마다의 경험이 포개질 때 감상은 하나의 감각에 머물지 않고 다층적 경험으로 확장된다. 올해 하슬라국제예술제는 이러한 감각의 확장을 축제 전반으로 넓혔다. 일루셔니스트 이은결과 예술감독 조재혁의 협업은 클래식 음악과 일루션을 결합했고, 세계 초연작 '소리의 몸짓: 가무악일체'는 국악과 무용, 클래식의 만남을 시도했다. 여기에 초당성당과 강릉대도호부 관아, 강릉시립미술관 솔올 등 일상의 공간으로 찾아간 무료 공연 '우월 음악잔치'와 두 차례로 늘어난 키즈 콘서트까지 더해졌다. 음악에 시각적 장식을 덧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매체와 감각을 엮어 예술을 경험하는 방식을 넓혀간다는 것이 이 축제의 차별점이다. 첫해 '시작'에서 '선물', '사랑과 우정'으로 이어진 하슬라국제예술제는 내년 '열정과 정열'을 주제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음악을 중심에 두면서 다른 장르와 감각, 지역의 일상을 연결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예술 플랫폼. 강릉의 가을에 남겨진 다채로운 감각의 여운이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만남과 울림으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글 **고성연**



1 2026 하슬라국제예술제에서 세계 초연으로 선보인 융합 공연 '소리의 몸짓: 가무악일체'. ©SihoonKim 2 2026 하슬라국제예술제의 마지막을 수놓은 '사랑에서 열정으로' 무대 위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숑, 그리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SihoonKim



T3 포토 페스티벌 도쿄
(T3 PHOTO FESTIVAL TOKYO)

도쿄의 사진 축제가 만들어나가는 관계의 플랫폼

프랑스 아를 국제사진축제(Les Rencontres d'Arles), 스페인의 포토에스파냐(PHotoESPAÑA), 캐나다 토론토의 콘택트 포토그래피 페스티벌(CONTACT Photography Festival)까지. 사진을 매개로 도시와 국제 사진계를 연결하는 축제들은 세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찾은 교토그라피(KYOTOGRAPHIE) 역시 인상적인 사례였다. 사찰과 신사, 오래된 건축물과 현대적인 공간을 전시장으로 삼아 교토의 역사와 분위기를 전시 경험의 일부로 끌어들였다. 그렇다면 도쿄에서는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공간 임대료가 높고 교토와는 구조도 다른 도쿄에서 사진 축제는 어떻게 관객을 모으고 도시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올해로 8회를 맞은 T3 포토 페스티벌 도쿄(T3 PHOTO FESTIVAL TOKYO)는 오피스 빌딩과 상업 시설, 거리의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며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지난 10월 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사진을 도시의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사진을 둘러싼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외 사진 페스티벌에서 영감을 얻어 축제를 시작한 창립자이자 디렉터 하야미 이히로(Ihiro Hayami)는 도쿄에서 축제를 운영하며 사진계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마주했고, 한국의 사진 기획자 김정은이 페어 디렉터를 맡은 T3 포토 아시아(T3 PHOTO ASIA)를 통해 아시아의 사진가와 갤러리, 사진계 인사와 컬렉터를 잇는 한편, 사진책과 출판 문화를 다루는 T3 북 마르셰(T3 BOOK MARCHÉ)까지 더하며 T3를 국제적인 사진 플랫폼으로 확장해왔다. 전시를 넘어 작품의 유통과 인적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며 사진 생태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온 T3. 축제로 시작한 창립자의 구상은 어떻게 사진가와 갤러리, 관객을 잇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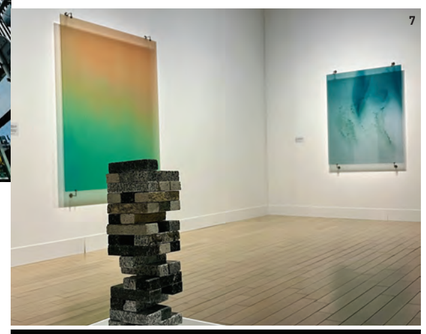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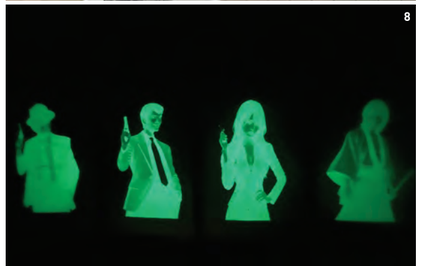
















#사진 생태계의 안팎을 잇는 사람

하야미가 사진계에 발을 들인 것은 사진가인 아버지와 무관하지 않다. 아버지는 사진을 촬영하는 동시에 사진 잡지 〈PHaT PHOTO〉를 발행했다. 그러나 하야미가 처음부터 사진가를 꿈꿨던 것은 아니다. 그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그래픽디자인과 경영학을 공부했다. 이후 진로를 고민하면서 직접 작품을 만드는 일보다 창작자와 예술가를 지원하는 역할에 더 끌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직접 예술가가 되는 것보다 창작자나 예술가를 지원하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가 생각한 일은 일본 작가들이 해외로 활동 영역을 넓히도록 돕고, 반대로 해외 작가들이 일본에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었다. 경영학을 공부했고 영어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살려, 창작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잇는 역할을 자신의 진로로 삼고자 했다.

그의 첫 커리어는 아버지가 발행하던 〈PHaT PHOTO〉의 광고 영업이었다. 약 3년간 광고주를 확보하고 광고를 판매했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싶었던 그에게 영업 업무만으로는 경력의 다음 단계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카메라 제조사 리코(Ricoh)에서 갤러리 공간의 기획과 운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긴자의 갤러리 링 큐브(RING CUBE)를 맡게 된 하야미는 당시 카메라 브랜드들이 운영하던 갤러리가 자사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을 소개하고 제품 구매로 연결하는 마케팅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사진 잡지나 영국의 상업 갤러리와 협업해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일본에 소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갤러리를 운영하며 전시 공간을 다루는 경험을 쌓고 사진가와 편집자 등 다양한 관계자와 인연을 맺은 그는 이후 〈PHaT PHOTO〉로 돌아와 편집장을 맡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작가들과 협업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넓혔다.

갤러리와 잡지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은 훗날 T3의 기반이 됐다. 하야미는 페스티벌에 초청하는 작가와 작품 가운데 상당수가 갤러리와 잡지사에서 일하던 시절에 알게 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T3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출판과 전시 현장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이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잡지의 역할을 대신할 '무대'를 만들자

하야미가 사진 페스티벌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1~2012년 무렵이다. 베이징의 차오창디 포토스프링(Caochangdi PhotoSpring – Arles in Beijing)을 방문해 중국 사진가들이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포트폴리오 리뷰를 받는 모습을 본 것이 계기였다. 일본에도 국제적인 사진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느낀 그는 2013년 도쿄 국제사진공모전(Tokyo International Photography Competition, TIPC)을 시작했고, 이를 2~3년간 운영한 뒤 독립적인 사진 페스티벌을 열었다.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그는 사진을 뒷받침하는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 사진 잡지는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을 알리는 통로였고, 공모전은 새로운 작가를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가와우치 린코 같은 작가 역시 공모전에서 주목받은 뒤 개인전과 사진집 출간, 잡지 기고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히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출판 산업이 위축되면서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던 잡지의 역할도 줄어들었다.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어려웠다. 하야미는 사진 페스티벌이 잡지의 역할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봤다.

"사진 페스티벌이 과거 잡지가 하던 역할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페스티벌은 작품을 보여주는 공간이지 판매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트 페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T3의 구상은 전시를 통해 작가를 소개하는 데서 작품의 유통과 판매, 국제적인 교류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됐다. 페스티벌과 아트 페어를 연결하고, 작가와 갤러리뿐 아니라 큐레이터와 비평가 등 사진계를 이루는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다.

#페스티벌에서 아트 페어로, 그리고 사진 생태계로

이 구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24년 T3 포토 아시아(T3 PHOTO ASIA)가 출범하면서다. 하야미는 한국과 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갤러리들이 참여하고, 해외의 큐레이터와 비평가들이 새로운 아시아 작가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사진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유통과 인적 교류를 연결하려는 시도다.

초대 디렉터로 3년간 T3 포토 아시아를 이끌어온 김정은에게 2026년은 임기의 마지막 해다. 아트 북과 전시를 다루는 문화 공간 더 레퍼런스의 대표이자 사진 전문 출판사 이안 북스의 발행인이기도 한 그는 아시아 각 지역의 갤러리와 사진계를 연결하며 페어의 성장을 이끌었다. 하야미가 자신에겐 직관 같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자, 필자는 농담 삼아 그 직관으로 김정은을 디렉터로 선임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들어맞았죠. 정말이지 열심히 해주셨어요." 2024년 14개 갤러리로 출발한 페어는 2025년 19개로 늘었고, 2026년에는 24개 갤러리와 5개의 넥스트 에디션(next edition) 등이 모이며 참여 주체가 약 30개 규모로 커졌다(10월 17~19일, 토프럼 야에스 타워 6층). 갤러리 부스뿐 아니라 특별전과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사진의 다양한 흐름과 맥락을 소개하는 것도 페어의 중요한 축이다. 실제로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적 연결을 조명하는 두 특별전도 눈길을 끌었는데, 〈Masters〉에서는 중국 출신 룽룽과 일본 출신 인리의 공동 작업 '쓰마리 스토리(Tsumari Story)'(2012~2014)를, 〈Discover New Asia〉에서는 중국에서 수집한 익명의 사진 아카이브 '베이징 실버마인(Beijing Silvermine)'으로 알려진 토머스 소빈(Thomas Sauvin)의 작업을 소개했다.



도쿄역 야에스 일대의 토프럼 야에스 타워(TOFROM YAESU TOWER)와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Tokyo Midtown Yaesu), 니혼바시와 교바시의 빌딩과 도심 속 열린 공간까지. T3 포토 페스티벌 도쿄는 도시 곳곳을 사진 전시장으로 바꾼다.

이곳에 놓인 작품들은 서로 다른 삶과 환경, 시선을 연결하며 올해의 주제인 '&(と)'를 구체화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저명한 사진가 자넬레 무홀리(Zanele Muholi)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왕관처럼 활용한 자화상을 통해 존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편, 사진을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의 관계를 묻는다. 루카스 폴리아(Lucas Foglia)는 아프리카에서 중동과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이동하는 나비를 따라가며 인간과 자연, 생태계와 국경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라 판 레이(Sarah van Rij)는 서로 다른 장소와 순간의 이미지를 겹쳐 도시의 풍경에 축적된 시간을 드러낸다. 돗토리 사구를 배경으로 한 연출 사진으로 잘 알려진 우에다 쇼지(Shoji Ueda)와 고향 돗토리의 10대들을 촬영해 사춘기의 감정과 변화를 포착하는 무레 아케미(Akemi Mure)의 2인전에서는 같은 지역을 배경으로 서로 다른 시대와 시선이 만난다. 이처럼 축제는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품들은 빌딩의 로비와 입구 등 사람들이 일하고 쇼핑하며 오가는 일상적인 공간에 들어서 익숙한 풍경에 새로운 시선을 더한다. 사진을 보러 특별히 전시장을 찾는 관객뿐 아니라 평소 사진 전시와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우연히 작품을 마주하고 발걸음을 멈춰 사진 속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사진과 관객 사이의 문턱을 낮춘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는 도쿄라는 도시의 조건이 반영돼 있다. T3 창립자 하야미 이히로(Ihiro Hayami)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교토와 도쿄의 차이를 설명했다. 도쿄는 인구와 건물이 밀집해 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데다 공간 임대료도 높아, 교토처럼 도시의 역사와 분위기가 깃든 장소를 전시장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교토에서는 사찰과 신사, 성 등 역사적 공간 자체가 전시의 무대가 될 수 있지만, 도쿄에서는 관객을 끌어들일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하야미는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매력적인 행사를 만들 방법을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축제의 형태뿐 아니라 일본 사진계를 지탱해온 기반 자체를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1 자넬레 무홀리(Zanele Muholi)의 전시 〈When Things Become a Crown〉이 열리는 토프럼 야에스 타워(TOFROM YAESU TOWER). 일상적인 가사 노동 도구를 왕관과 존엄의 상징으로 전환한 자화상 연작 'Somnyama Ngonyama(Hail the Dark Lioness)'를 통해 누가 보여지는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 질문한다. Courtesy of T3 Photo Festival Tokyo 2026

2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에서 펼쳐진 루카스 폴리아(Lucas Foglia)의 전시 〈Constant Bloom〉. 나비의 이동 경로를 기록한 사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결성을 탐색한다. **3** 루카스 폴리아의 'Constant Bloom' 프로젝트 중 2022년 모로코에서 촬영한 작품 'Tracks from Insects(Plus Two Lizards and One Mouse)'.

4, 5 도쿄 다테모노 니혼바시 빌딩과 산에이 빌딩에서 선보인 사라 판 레이(Sarah van Rij)의 전시 〈L'épaisseur du temps〉. 서로 다른 장소와 순간, 현실의 파편을 겹쳐 기억이 축적되고 시간이 중첩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도쿄의 거리와 풍경, 사물과 몸짓이 시간의 층위를 이룬다.

6 T3 창립자 하야미 이히로(Ihiro Hayami). Courtesy of T3 PHOTO FESTIVAL TOKYO 2026

7 도쿄도사진미술관(TOP)의 기획전 〈다시 조립하기(Assembling Anew: Memories, Materials, Context, Technology — Contemporary Japanese Photography vol. 23)〉에 참여한 노무라 자이(Zai Nomura)는 사진과 조각, 기계장치 등을 활용해 이미지와 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8 도쿄 하마초 호텔에서 선보인 〈GC 매거진〉의 'Snatch Your Soul'은 촬영용 스트로보의 빛으로 이미지를 드러냈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하며, 사진이 이미지를 포착하고 보존한다는 통념을 뒤집는다.

9 우에다 쇼지(Shoji Ueda)의 전시 〈Shoji Ueda's Inner Child〉. 대표적인 돗토리 사구의 연출 사진을 넘어, 1971년 연작 'Children the Year Around'를 중심으로 어린 시절과 호기심, 실험에 대한 작가의 평생에 걸친 관심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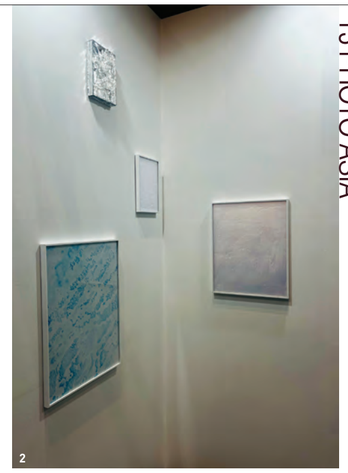
10 역시 돗토리 출신의 주목받는 작가 무레 아케미(Akemi Mure)의 전시 〈Hidden Within the Chrysalises〉. 우에다 쇼지의 작업과 함께 마르크 푀스텔(Marc Feustel)이 기획한 2인전의 한 축을 이룬다.

11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도쿄 토프럼 야에스 타워 1층에서 개최된 T3 북 마르셰(T3 BOOK MARCHÉ) 2026 현장. Courtesy of T3 Book Marché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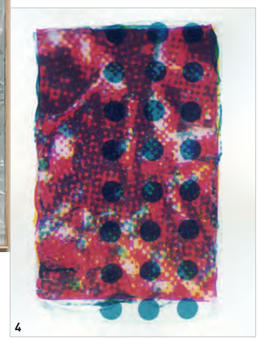
※ 2~5, 7~10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 리처드 플로리다가 제시한 도시 번영의 조건인 기술·인재·관용(3T)에서 이름을 딴 도쿄의 도시형 사진 축제, T3 포토 페스티벌 도쿄의 공식 홈페이지 t3photo.tokyo


1


2


3


4


5

"이전에는 늘 서구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소통할 힘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토 페어'가 아니라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정은 디렉터는 페어에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문화 공동체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아시아라는 이름만으로 교류가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각 지역마다 사진을 생산하고 전시하며 유통하는 방식과 역사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도쿄에서의 만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T3 포토 아시아의 당면 과제다.

2026년에는 포토북을 중심으로 독립 출판 문화를 소개하는 T3 북 마르셰(T3 BOOK MARCHÉ)도 함께 열렸다(10월 17~18일, 토프럼 아에스 타워 1층). 사진집과 아티스트 북, 진(zine) 등 독립 출판물을 선보인 이 프로그램에는 72개 팀이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디렉터는 일본에서 유학한 중국인 진추위(金秋雨, Jin Qiuyu)가 맡았다. 갤러리와 작품 거래를 중심으로 한 아트 페어에 독립 출판과 사진책을 더함으로써, T3는 사진가와 출판인, 책을 만드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만나는 접점을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1 T3 포토 아시아 2026 특별전 〈디스커버 뉴 아시아 Vol. 3(Discover New Asia Vol. 3)〉에서 선보인 토머스 소빈의 프로젝트 'Things Left Behind'. **2** 더 레퍼런스(서울) 부스. 오연진과 하마다 유지의 2인전을 선보였다. **3** 오연진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사진의 표현 방식을 실험하는 작가다. 'Molted #3'(2024), 레진, 비닐, 발색 인화지, 패널, 118×93cm. **4** 하마다 유지는 암실에서 빛과 용액, 시간을 활용해 이미지를 만들고 레진으로 고정하는 등 사진의 경계를 확장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C/M/Y_mineral#16'(2015), 디지털 몰라로이드 전사. **5** 하야미 이히로(왼쪽)와 T3 포토 아시아 페어 디렉터 김정은(오른쪽). **6** 아키 갤러리(AKI Gallery, 타이베이)가 선보인 차이밍더(Ming-te Tsai)의 'That Night, the Biker Gangs Took Over Taichung 3'(1995), 디지털 프린트, 이미지 28×35.6cm, 에디션 8+2AP Courtesy of AKI Gallery **7** 코타로 누카가(KOTARO NUKAGA, 도쿄)에서는 아이카와 마사루, 이시즈카 겐타로, 오리올 빌라노바의 작품을 선보였다. **8** 예화랑(GALLERY YEH, 서울)은 올해 임응식의 생활주의 리얼리즘 사진과 전통 무용가 사진, 김우영의 도시 개발과 공간에 축적된 시간의 흔적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 1, 5 Courtesy of T3 Photo Asia 2026

※ 2, 7, 8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 3, 4 이미지 제공_더 레퍼런스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향해

하야미는 사진 생태계 자체의 변화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일본은 모리야마 다이도와 호소에 에이코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진가들을 배출하며 탄탄한 전통을 쌓아왔지만, 역설적으로 그 전통이 사진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수적으로 만들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통적인 사진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작업은 사진 잡지나 전시에서 소개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조각이나 회화로 분류하기도 어려워 설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마초 호텔에서 선보인 (GC 매거진)의 'Snatch Your Soul'은 촬영용 조명인 스트로보의 빛으로 이미지를 드러냈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하며, 사진이 이미지를 포착하고 보존한다는 통념을 뒤집는다. 도쿄도사진미술관(TOP)의 기획전 〈다시 조립하기: 일본의 신진 작가 vol. 23〉에 참여한 노무라 자이 역시 사진과 조각, 기계장치 등을 활용해 이미지와 현실의 관계를 탐구한다. 하야미는 이처럼 사진의 전통적 범주를 넘어 사진을 활용하는 작가들을 축제에 더 많이 소개해 일본 사진 문화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플랫폼을 키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처음부터 무료로 운영한 사진 축제는 카메라 브랜드의 후원을 받았지만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하야미는 개인 자금과 아이들을 위해 모아둔 저축까지 써야 했다. 전환점은 2020년 도쿄 스쿼어 가든과 관계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제공한 약 7백만 엔의 지원이었다.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다른 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체에도 금전적 후원 대신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제안했다. 전시를 열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구상이었다. 방문객이 늘면서 참여 기업도 한두 곳에서 대여섯 곳으로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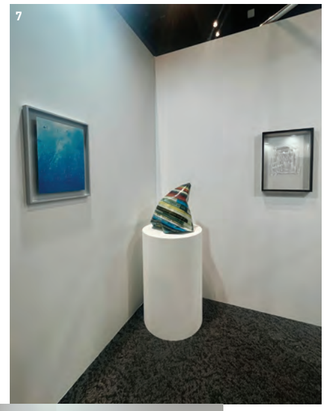
JR과 도쿄 메트로의 참여는 공공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민간의 개별 행사로 보이던 축제가 교통 기관과 함께 지역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2년 처음 정부 지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졌다. 이제 도쿄 메트로는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역내 포스터 게시도 돕고 있다.

하야미는 자신이 영원히 축제의 디렉터로 남을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사진 생태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청립자로서 조언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더라도,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위해 자신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뒤를 이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 적임자를 찾지는 못했지만,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축제의 비전과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그가 T3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사진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기보다, 사진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움트고 다음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씨를 지피고자 한다. "I wanted to create a spark."

글 **고성연**(도쿄 현지 취재)


6


7


8

So Precious

브레이슬릿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주얼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티파니 티파니 하드웨어 워치**
아이코닉한 하드웨어 컬렉션의 감성을 워치로 재해석했다. 18K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화이트 머더오브펄 다이얼을 더했다. 지름 24mm 케이스에 고정밀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1670-1837
까르띠에 베누아 워치 우아한 타원형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타임피스. 미니 사이즈 케이스와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옐로 골드로 완성하고, 클루 드 파리 장식으로 한층 더 강렬한 모습을 선사하며, 아이코닉한 사파이어 카보숑 크라운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브레게 레인 드 네이플 8925 아브라함-루이 브레게가 제작한 역사적인 여성용 손목시계를 계승하는 컬렉션. 18K 브레게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볼 어태치먼트가 특징이며, 수작업으로 새긴 태양 광선 무늬의 기요셰 골드 다이얼과 골드 인덱스, 핸즈가 브레이슬릿까지 이어져 여성용 주얼 워치로 손색없는 모습을 자랑한다. 1억2천1백89만원. 문의 02-6905-3571
부첼라티 롬비 1920년대 마리오 부첼라티가 디자인한 티아라의 패턴과 진귀한 페르시아 카펫의 기하학적 모티브에서 영감받아 완성한 주얼 워치. 화이트 및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지름 31mm 케이스와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로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490
그라프 스파이럴 컬렉션 다이아몬드 뱅글 워치 회전 모티브의 인피니트 스파이럴 베젤 디자인이 유니크함을 선사하며, 다이얼 및 케이스는 물론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전체에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전하는 주얼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쇼메 조세핀 아그레뜨 워치 메종의 상징인 V 자형 아그레뜨 모티브와 조세핀 황후의 우아함에서 영감받은 18K 로즈 골드 페어 컷 세이프 케이스에 화이트 태양 광선 브러싱 마감 다이얼을 장착했다. 베젤과 아그레뜨 모티브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매력을 자아낸다. 5천만원대. 문의 1670-1180
피아제 익스트림리 레이디 워치 메종의 대담하고 우아한 주얼 워치 디자인에서 영감받은 독특한 형태의 워치로 유연한 18K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과 데코 팰리스 인그레이빙 등이 브랜드의 독보적인 골드 세공 노하우를 보여준다. 베젤에 다이아몬드 24개를 세팅했으며, 묘한 그린 컬러 제이드 다이얼을 더하고 피아제 355P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275
크루그 그랑 퀴베 173 에디션 매년 새롭게 탄생하는 샴페인의 가장 관대한 표현. 2017년 수확분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13개 연도에 생산된 1백50종의 와인을 블렌딩한 샴페인으로, 2000년대 와인 특유의 우아함과 원숙함, 너그러움이 돋보인다. 시럽에 절인 복숭아와 잘 익은 시트러스 과일의 부드러운 풍미로 시작해 왁스와 토스트, 잣의 향으로 이어지며, 상큼한 레몬의 여운을 남긴다. 750ml 가격 미정. 문의 02-2188-5100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김지원**

블랙 컬러 몽클레르 리아이콘 카라코룸
(Karakorum) 재킷과 솔릭스(Solix)
라운드 선글라스를 착용한 제니.



Born to Pioneer

정해진 길을 따르는 자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는 극명한 차이를 만든다.
몽클레르가 브랜드의 산악 헤리티지와 선구자 정신을 재해석한 리아이콘 컬렉션을 선보이며
시대를 초월한 세 아이콘 제니, 셰어, 그레이스 존스와 함께 선구자 정신을 재조명한다.

몽클레르 리아이콘 컬렉션의
화이트 니트 톱에 바라클라바를
매치하고 A라인 다운
미디스커트로 룩을 완성했다.



"저의 가장 특별한 꿈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저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창작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더 큰 꿈을 꾸는 거죠"
- 제니



몽클레르 리아이콘 2026 컬렉션의 패딩 베스트 팁(Tibb)을 착용한 캠페인 영상 속 제니.



1



2



3



4

1952년 프랑스 알프스 산악 마을인 모네스티에르-르-클레르몽(Monestier-de-Clermont)에서 탄생한 몽클레르는 풍부한 산악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탐험가와 선구자 정신을 컬렉션에 담아왔다. 누구보다 먼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선구자에게 필요한 하이엔드 기술을 담은 장비를 제공하며 그들의 도전을 뒷받침해온 것이다.

올해 몽클레르는 초심으로 돌아가 메종의 개척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몽클레르 리아이콘(Moncler Re/Icons) 컬렉션을 선보인다. 동시에 공개한 글로벌 캠페인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세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특히 한국인 아티스트로 제니가 선정되어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제니는 이제 K-팝 아이돌을 넘어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콘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디지털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영향력을 확장해온 것은 물론, 국경을 초월해 글로벌 스타일을 이끌고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저의 가장 특별한 꿈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저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창작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더 큰 꿈을 꾸는 거죠"라는 인터뷰처럼 제니는 개성을 존중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전 세계 다양한 세대에게 새로운 기준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예술과 창의성, 정체성에 경계가 없는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선구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몽클레르의 헤리티지와도 닮았다.

캠페인에서 제니는 블랙 컬러 몽클레르 리아이콘 카라코룸(Karakorum) 재킷을 착용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군중 속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는 문화적 선구자로서 전 세계에 미치는 제니의 폭넓은 영향력과 높은 위상을 상징한다. 나머지 인물로는 음악과 영화, 패션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글로벌 스타일을 이끌고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온 아티스트이자 기존 관습을 깬 혁신가인 셰어(Cher)와 자신의 이미지를 아방가르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음악과 패션, 인종과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운드와 이미지, 존재 방식을 개척해온 그레이스 존스(Grace Jones)가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활약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브리엘 모지스(Gabriel Moses)가 촬영과 연출을 맡았으며 3명의 아티스트를 각각 군중의 중심에 배치해 존재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개개인의 독창성을 강렬하게 표현했다. 가브리엘 모지스는 세 아티스트가 걸어온 여정과 유산, 독보적인 존재감에서 영감받아 힘과 우아함, 독창성이 어우러진 영화적인 포트레이트를 완성했다. 각기 다른 세 가지 세계 속에서 제니와 셰어, 그레이스 존스는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선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알파인 헤리지티

이번 몽클레르 리아이콘 2026 컬렉션의 피스들은 1950년대 초기 산악 원정부터 1980년대를 상징하는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몽클레르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카라코룸, 베로네(Verone), 히말라야(Himalaya), 팁(Tibb) 등 네 가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 이번 시즌 처음으로 아우터웨어를 넘어 윈드브레이커, 티셔츠, 팬츠, 스커트 등으로 구성된 레디투웨어 풀 룩 컬렉션으로 확장해 완성했다. 특히 재킷에는 서로 다른 톤을 겹겹이 조합해 깊이감을 주는 카마유(camaïeu) 컬러 기법을 적용했으며, 안감에는 비토리오 셀라(Vittorio Sella)가 1909년 6월 촬영한 상징적인 K2 사진을 라벨로 담았다. 새롭게 재해석한 그래픽 모티브와 빈티지 알파인 기념 핀에서 영감받은 포켓에 부착한 메탈 로고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브랜드의 알파인 문화와 산악 원정의 역사를 담은 아카이브 콘텐츠와 몽클레르가 처음 참여한 장편영화 〈비앙코(Bianco)〉도 함께 공개한다.

전설적인 산악인이자 몽클레르와 초창기부터 협업해온 리오넬 테레(Lionel Terray)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푸퍼 슬리핑 백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산악 장비에 이르기까지 몽클레르의 초기 혁신을 조명하는 필름을 통해 이번 겨울 시즌의 내러티브 테마인 '몽클레르와 함께 비범한 꿈을 품은 선구자들(Pioneers in Moncler with Extraordinary Dreams)'을 소개했다. 다니엘레 비카리(Daniele Vicari)가 감독하고 알레산드로 보르기(Alessandro Borghi)가 전설적인 산악인 발테르 보나티(Walter Bonatti) 역으로 출연하는 장편영화에는 1954년 K2 원정을 위해 처음 제작된 아이코닉한 카라코룸 재킷을 재현해 선보이며, 브랜드의 산악 역사상 깊은 인상을 남긴 감동적인 원정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몽클레르 리아이콘 컬렉션은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포함한 일부 백화점 스토어 및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030-8321-0794

에디터 **성정민**

1 팁(Tibb)은 올과 롱 시즌 소재의 리버서블 패딩 베스트로 여유로운 실루엣이 돋보이며, 다양하게 레이어링할 수 있다.
2 제니의 캠페인 비주얼 촬영 비하인드 컷.
3 캠페인의 또 다른 주인공인 셰어. 몽클레르 리아이콘 히말라야(Himalaya) 재킷을 착용하고 옐로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었다.
4 딥 퍼플 컬러의 몽클레르 리아이콘 카라코룸(Karakorum) 재킷을 착용한 캠페인 속 그레이스 존스.
5, 6 몽클레르 리아이콘 2026 컬렉션.



5



6

La Bohème

새로운 시즌을 여는 매혹적인 믹스 매치.
에트로의 럭셔리 보헤미안 무드.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레오퍼드 크롬트 벨벳 코트 4백44만원,
V넥 울 스웨터 2백30만원,
루렉스 디테일의 실크 크레폰
롱 드레스 6백34만원,
페이즐리 모티브 이어링 64만원, 카키
스웨이드 포니 백 2백75만원, 체인 &
페가소 코인 가죽 참 45만원 모두 **에트로.**

왼쪽 페이지 딥 네이비 울 벨루어
더블브레스트 코트 4백90만원,
러플 디테일 체크 패턴 셔츠
1백60만원, 스터드 디테일 데님 팬츠
1백84만원, 자수 디테일 카프 스킨 벨트
1백8만원, 프린지 디테일 양면 스카프
1백84만원, 우븐 레더 하이힐 샌들
1백40만원, 카우보이 햇 2백30만원,
카키 스웨이드 리브라 백 2백54만원,
브라운 스웨이드 리브라 백 2백54만원,
디그레이드 실크 트윌 페이즐리나
29만원 모두 **에트로.**

페더 장식 마이크로 하운즈투스
싱글브레스트 울 재킷 5백14만원,
네이비 시스루 셔츠 가격 미정,
네이비 레이스 브라 톱 가격 미정,
페더 장식 마이크로 하운즈투스
스트레이트 울 팬츠 2백30만원,
플라워 스터드 포니 레더 벨트
1백28만원, 페이즐리 모티브
이어링 64만원 모두 **에트로.**





폐가소 버튼 울 크롭트 재킷
3백48만원, 롱 실크 시스루
드레스 7백50만원, 페이즐리
버클 가죽 부츠 2백58만원,
카키 스웨이드 포니 백
2백75만원 모두 **에트로.**

토끼 그레이 울 벨루어
더블레스트 코트
494,442원, 미디움 다이아몬드
패턴 앤클 넥 스웨터 294,302원,
미디움 다이아몬드 패턴
플레어 팬츠 294,442원,
프린지 디테일 앞면 스카프
184,842원, 피닉스 모티브 브로치
142,142원, 타이거 모티브
브로치 88원원, 우르 레더
하이힐 샌들 140,402원,
브라운 스웨이드 포니 백
275,294원 모두 **에트로.**
문의 1899-2339

재이 마준호
메이크업 **조해민**
모델 **Lillian M(EVER Model)**
스타일리스트 **채원석**

후드티 울 코트 584,982원, 멀티컬러
코르셋 롱 514,142원, 레이클리
지기드 싱글브레스트 자킷
442,442원, 레이클리 지기드
팬츠 294,802원, 레이클리 버클
가죽 부츠 294,582원, 미닉스 모티브
브로치 142,142원 모두 **에트로.**


1


2


3


4

Here and Now

기존 틀에서 벗어나 예상 밖의 조합으로 새로운 미학을 제안하는 미우미우의 2027 S/S 컬렉션.
상반된 스타일과 소재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뉴발란스와의 협업을 통해
익숙함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미우미우가 의외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법.

익숙한 것의 조합은 때로 가장 낯선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미우미우의 2027 S/S 컬렉션은 상반된 요소를 과감하게 배치하고 재구성하며, 의도적인 불균형과 자연스러운 불완전함으로 일상의 옷차림에 새로움을 부여한다. 클래식한 체크 재킷 안에 기능성 스포츠 톱을 겹쳐 입고, 낮게 걸친 플리츠스커트 위로 스윔웨어를 언뜻 드러낸다. 실키한 블라우스에는 마이크로 쇼츠나 트랙 팬츠를, 칵테일 드레스에는 스니커즈를 매치해 이질적인 스타일을 한데 엮는다. 격식과 편안함, 이너와 아우터웨어,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을 구분하던 명확한 경계는 이처럼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 스타일링에서 드러난 대비는 의상의 디테일로 이어진다. 스커트와 팬츠의 허리에는 벨트 대신 투박한 끈을 달고, 단추나 지퍼가 자리하던 곳에는 끈을 X자로 교차해 묶는 레이싱 기법을 활용했다. 랭글러(Wrangler)와 협업해 선보인 빈티지 데님에도 동일한 디테일을 적용해 끈을 조이거나 느슨하게 풀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식과 기능을 결합한 세부 요소는 옷의 형태와 실루엣에 유연함을 더하며 미우미우 특유의 위트와 창의성을 강조한다. 패턴과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브랜드의 감각이 두드러진다. 기하학적 프린트와 예상치 못한 패턴의 교차는 익숙한 실루엣에 시각적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소재 역시 독특한 가공을 통해 본래의 인상에서 벗어난다. 스웨이드는 왁스 가공을 거쳐 표면에 균열과 세월의 흔적을 남기고, 새틴과 거즈에는 의도적으로 주름을 잡아 구겨진 듯한 디테일을 연출했다. 매끄럽고 완벽한 마감 대신 시간과 착용의 흔적이 느껴지는 질감에 주목한 것이다. 컬렉션의 디자인 방향은 뉴발란스와의 협업 스니커즈인 RC15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브랜드는 5년째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 뉴발란스가 선보인 레이싱 스니커즈를 미우미우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제품명은 150g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서 유래했다. 테크니컬 메시 소재로 스포티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해체적 디자인 요소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어퍼 전체를 가로지르는 지그재그 자수와 발끝의 외부 고리에 느슨하게 묶은 레이스는 정형화된 러닝화의 외관을 변형하고, 차분한 색조부터 선명한 컬러까지 아우르는 팔레트는 경쾌한 인상을 완성한다. 이처럼 미우미우는 의상과 소재, 세부 장식의 기존 용도와 맥락을 비틀어 스타일 규칙을 과감하게 변주했다. 정해진 방식대로 완벽하게 갖춰 입기보다 서로 다른 요소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 이번 컬렉션은 옷을 입는 행위 자체가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 창의적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의 02-541-7443

에디터 **김하얀**

1 스포티함과 우아함의 경계를 허문 미우미우 2027 S/S 컬렉션의 피날레. **2, 3** 1990년대 후반에 선보인 RC150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뉴발란스 협업 러닝화. **4** 포멀한 재킷에 유니크한 패턴의 브라 톱을 입고, 트랙 수트와 재킷을 조합해 미우치아 프라다 특유의 대담한 믹스 매치를 선보였다. **5** 재킷과 셔츠에 랭글러 협업 데님과 스윔 팬츠를 매치하고 런웨이를 걷는 모델. **6** 스포츠 브라와 여성스러운 미디스커트에 뉴발란스 협업 스니커즈를 더한 지지 하디드. **7** 뉴발란스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스니커즈는 지그재그 자수와 앞코를 장식한 느슨한 레이스 디테일이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5


6


7

"미우미우 2027 S/S 컬렉션은 스포츠웨어와 클래식한 우아함을 대담하게 교차시키며 익숙한 일상복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아웃 포켓 디테일로 실용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인 스웨이드 필드 자켓 2백38만원 **만조니 by 폼라운지.**

양털 100%로 부드럽고 풍성한 텍스처를 자랑하는 탁시도 스카프 2백9만원 **아뇨나.**

정교한 스티치가 돋보이는 스웨이드 레더 벨트 26만8천원 **앤더슨스 by 폼라운지.**


캐시미어 소재 V넥 크레셋 베스트 1백97만원 **가브리엘라 허스트.**

Winter Affair

섬세한 캐시미어의 결, 정교하게 다듬은 가죽의 표면,
부드러운 퍼의 질감. 소재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진다.
완성도 높은 소재와 디테일에 집중한 한섬이 제안하는 겨울 위시 아이템.

PHOTOGRAPHED BY **JEONG SEOK HEON**


양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캐시미어 스카프 72만8천원 **쿤 by 폼라운지.**


부클레 패브릭과 스웨이드가 어우러진 윈드스케이프 로우 스니커즈 35만5천원 **오트리 by 폼라운지.**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보온성을 갖춘 알파가 소재의 버스크 롤립 햇 32만8천원 **카시라 by 폼라운지.**


캐시미어 특유의 짜임과 컷아웃 디테일이 남다른 크루넥 롱로 니트 2백99만원 **아뇨나.**


재킷이나 코트에 머플러처럼 둘러 연출할 수 있는 시어링 소재의 드미테르 퍼 코트 칼라 5백59만원 **가브리엘라 허스트.**


카피바라 가죽으로 완성한 언라인드 글러브 53만8천원 **메종라 by 홍라운지.**

실크와 캐시미어 등 섬세한 소재로 복슬복슬한 텍스처를 살린 엠패러 플랫 슈즈 1백9만원 **가브리엘라 허스트.**

여유로운 실루엣과 포근한 양털 텍스처가 인상적인 후디드 재킷 1천95만원 **아뇨나.**


둥근 앞코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염소가죽 소재 루크 부츠 2백39만원 **가브리엘라 허스트.**


부드러운 곡선과 구조적인 형태가 특징인 양가죽 소재의 소프트 데미 체인 클러치. 17×13×10cm, 3백79만원 **가브리엘라 허스트.**

에디터 **김하얀** 어시스턴트 **김지원**

가브리엘라 허스트 02-3438-6132 **아뇨나** 02-3449-5942 **폼라운지** 02-3438-6142

Get The List

형태와 질감은 달라도 레드가 지닌 존재감은 선명하다. 작은 포인트로 생기를 불어넣거나, 컬러 그 자체로 스타일에 힘을 싣거나.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DAMIANI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꽃의 풍성한 형태를 구현한 미모사 링,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십자가 모티브에 레드 루비를 세팅한 벨 에포크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다미아니. 문의 02-515-1924



CHANEL
버건디 컬러와 크로커다일 엠보싱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는 카프 스킨 체인 클러치. 23×11×10.5cm,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TAG HEUER
41mm 스틸 케이스와 스모키 레드 다이얼에 요일과 날짜 표시 기능을 더했다. TH31-02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까레라 데이 데이트 6백30만원 **태그호이어**. 문의 02-3479-6021



LOUIS VUITTON
날렵한 앞코와 길고 매끈하게 이어지는 실루엣, 메탈 장식으로 1970년대 감성을 담아낸 스웨이드 도나 하이 부츠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AGNONA
스탠드칼라와 허리 벨트, 더블 니트 구조가 특징인 캐시미어 소재 버건디 하이넥 하프 코트 가격 미정
아뇨나. 문의 02-3449-5942

PRADA
비즈와 스톤 장식으로 화려함을 전하는 포인티드 토 슬링백 펌프스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FRED
시작과 끝이 없는 곡선 디자인으로 영원한 연결을 상징한다. 루비와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핑크 골드 체인 브레이슬릿과 링 모두 샹스 인피니 컬렉션 가격 미정
프레드. 문의 02-514-3721



어시스턴트 **김지현**

ETRO
(뒤부터 차례대로) 브랜드 시그너처인 페가소 잠금장치, 버클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몰 스웨이드 포니 백 22.5×16×7cm 2백45만원, 부드러운 실루엣의 카프 스킨 미디엄 포니 백 29×20×10cm 2백95만원 모두
에트로. 문의 1899-2939 에디터 **김하얀**



Time Code

강렬한 컬러부터 정교한 워치메이킹, 주얼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자인까지.
올 하반기 주목해야 할 워치 트렌드를 담은 13개의 타임피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태그호이어 모나코 에버그래프
반투명 다이얼을 통해 드러나는 오픈워크 구조로 혁신적인 컴플라이언트 메커니즘을 적용한 칼리버 TH80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전례 없는 크로노그래프 워치. 지름 40mm의 그레이드 5 티타늄으로 제작한 케이스는 뛰어난 내구성과 가벼움을 겸비했다. 블루 오팔린 카운터에 레드 및 화이트 컬러로 포인트를 준 버전과 블랙 오팔린 카운터, 레드 및 화이트로 완성한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4천2백70만원. 문의 02-3479-6021

태그호이어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1969년 오리지널 모나코의 상징적인 블루 다이얼 디자인 코드를 충실히 재해석한 타임피스. 지름 39mm 그레이드 5 티타늄 케이스로 내구성과 가벼움을 업그레이드하고, 블루 오팔린 다이얼과 실버 오팔린 서브 카운터의 선명한 대비와 레드 및 화이트 포인트의 디테일이 역동적인 레이스 감각을 드러낸다.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TH20-11로 구동하며 8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천3백19만원. 문의 02-3479-6021



손목 위에 펼쳐진 새로운 시간

2026년 하반기, 럭셔리 워치 시장은 전통적인 기술력에 과감한 색채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미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뿐 아니라 자신만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워치의 존재감이 한층 뚜렷해졌다. 대담한 컬러와 소재의 조합부터 다채로운 컬러로 표현한 여행과 탐험의 감성까지. 한편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클래식 디자인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기존 모델에 현대적인 터치를 더해 업그레이드한 모델이 눈에 띈다.
여성 워치 시장에서는 시계와 주얼리의 경계가 더욱 흐려진 모습이다. 다이얼은 더 작아지고 사양은 더 높아졌으며, 브레이슬릿 형태를 변형하거나 주얼리 컬렉션을 재해석한 워치를 선보이는 식. 이처럼 2026 F/W 워치 트렌드는 과감한 표현과 절제된 우아함, 그리고 전통적인 장인 정신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시즌 시계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착용자의 미적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오브제가 될 전망이다.



태그호이어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시그너처 사각형 구조와 대담한 선레이 효과, 래커 처리한 다크 그린 컬러 다이얼, 블랙 오팔린 서브 다이얼이 조화를 이루면서 클래식한 모터 스포츠 감성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타임피스. 지름 39mm 그레이드 5 티타늄 케이스로 뛰어난 경량성과 견고함을 부여했으며,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TH20-11로 8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1천3백19만원. 문의 02-3479-6021



바쉐론 콘스탄틴 오버시즈 듀얼 타임 카디널 포인트 – 동쪽
2019년 사진작가 겸 탐험가인 코리 리차드를 위해 특별 제작한 프로토타입에서 영감받아 재탄생한 타임피스로 41mm의 티타늄 케이스와 일체형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했다. 해당 피스는 네 가지 다이얼 컬러 중 동쪽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로 그레인 처리해 깊이감과 세련미를 추가했다.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칼리버 5110 DT/3으로 작동하며 2개의 타임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6천4백50만원. 문의 1877-4306



글라슈테 오리지널 세나토 엑설런스 파노라마 데이트 문페이즈
독일 전통의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기술과 클래식한 디자인을 결합한 드레스 워치로 지름 40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수작업으로 완성한 프로스티드 실버 다이얼이 우아한 감성을 전하며, 10시와 11시 방향 사이 문페이즈와 인덱스, 핸즈를 블루 아연 도금 처리해 은은한 빛을 부여한다. 오토매틱 칼리버 36으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10-1749



루이 비통 땅부르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클래식하면서도 일체형 스트랩이 스포티한 매력을 자아내는 아이코닉한 워치. 지름 40mm 로즈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은은한 브라운 컬러 다이얼을 매치하고, 6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 카운터가 자리하며,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12·2·4·8·10에는 발광 코트를 입혀 가독성을 높였다.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LFT023으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32-1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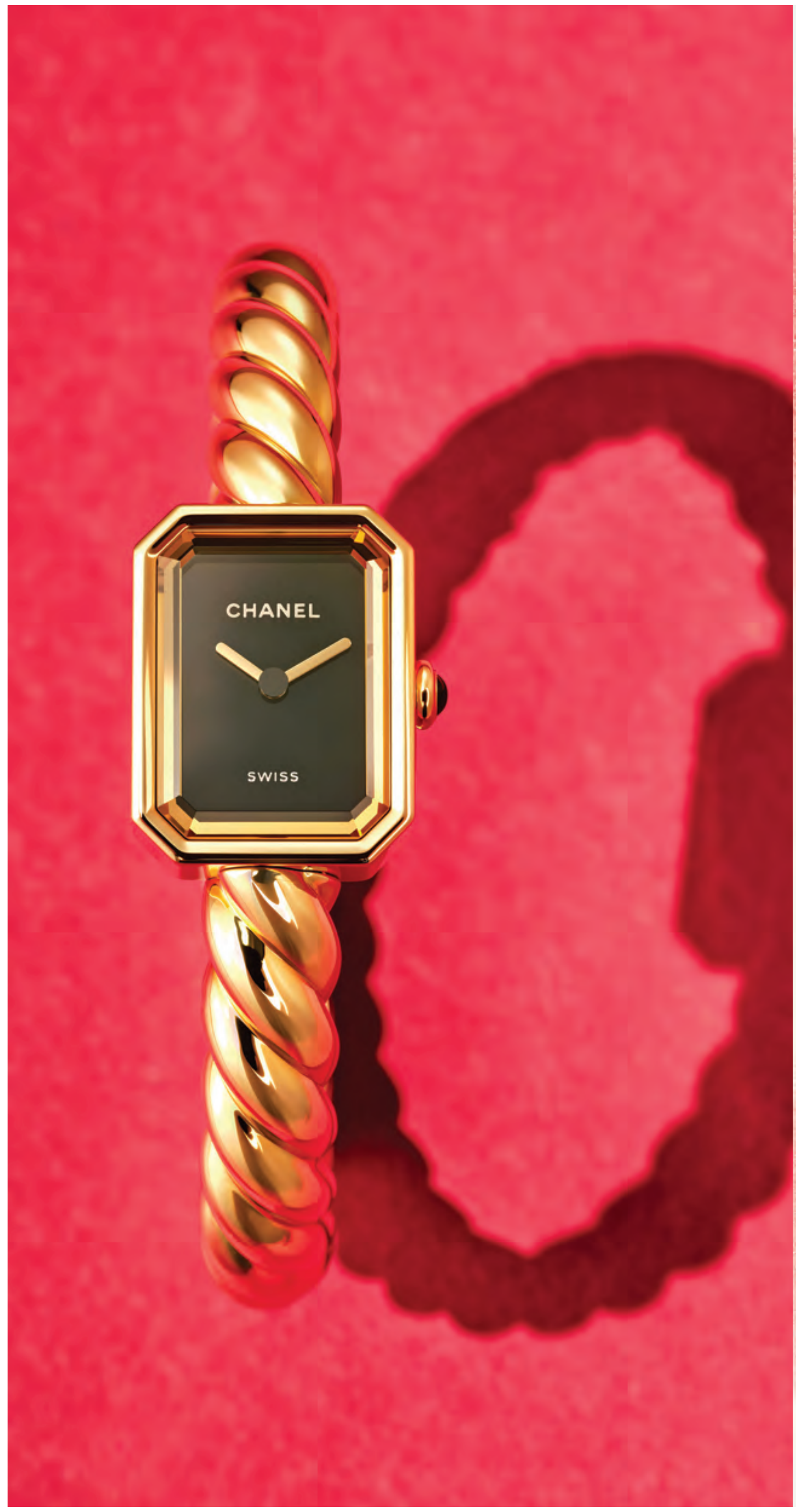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메종만의 컬러 감각을 담은 개성 있는 터쿼이즈 태피스리 다이얼이 돋보이는 타임피스. 지름 37mm의 다소 콤팩트한 사이즈의 티타늄 케이스를 장착했으며, 터쿼이즈 러버 스트랩을 적용해 통일감을 주었다. 셀프 와인딩 칼리버 6401로 작동한다. 6천만원대. 문의 02-543-2999



피아제 알티플라노 오리진 워치
간결한 디자인과 정교한 컴플리케이션을 워치메이킹 기술력으로 극도의 얇은 케이스에 담은 타임피스. 지름 38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선버스트 화이트 다이얼을 매치하고, 바 형태의 로즈 골드 아워 마커와 피아제 문장 인그레이빙으로 완성했으며, 그린 카프 스킨 스트랩으로 컬러 포인트를 주었다. 자체 제작 430P 울트라-신 기계식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4천만원대. 문의 1877-4275



위블로 빅뱅 오리지널 소프트 터치 올 레드
독특한 벨벳 느낌을 적용한 레드 러버로 오버 몰딩한 지름 43mm 티타늄 케이스를 통해 소재에 대한 메종의 노하우를 보여주는 개성 있는 타임피스. 역시 벨벳 이펙트를 적용한 레드 러버 다이얼과 레드 스트럭처드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으며, HUB1280 유니코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로 구동한다. 3천6백10만원대. 문의 02-540-1356







샤넬 워치 프리미에르 갈롱
파리 방돔 광장과 샤넬 N°5 향수병 뚜껑의 팔각형 형태에서 영감받은 아이코닉 타임피스로 레더를 엮은 기존 체인 브레이슬릿에서 리즈드 브레이드 모티브의 뱅글 형태로 다시 한번 진화했다. 케이스와 뱅글 및 클래스프는 18K 옐로 골드 소재이며, 블랙 래커 다이얼을 매치해 클래식한 매력을 더했다. 스위스 샤넬 매뉴팩처에서 제작한 초정밀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블랑팡 레이디 B
메종의 아이코닉한 워치, 레이디버드 컬렉션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1956년에 탄생한 '레이디버드 불릿'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제작한 타임피스. 지름 19mm, 부피 2.9cm^3에 불과한 구형 케이스에 인하우스 칼리버 615를 탑재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다이얼은 오팔린으로 완성했으며, 두 번 감을 수 있는 퍼플 컬러 카프 레더 스트랩으로 경쾌한 감성을 전한다. 1천5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어시스턴트 **김지현**

티파니 버드 온 어 락 워치
전설적인 디자이너 잔 슐럼버제가 탄생시킨 주얼리에서 영감받은 모티브를 가득 담은 타임피스. 8백27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지름 39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 9개의 바게트 컷 사파이어와 7개의 바게트 컷 에메랄드 및 20개의 바게트 컷 블루 토파즈를 파베 세팅한 다이얼이 영롱한 자태를 뽐낸다. 셀프 와인딩 메커니컬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1670-1837

에디터 **성정민**



슬로 스테이, 아즈마 팜 고이와이(AZUMA FARM Koiwai)

재료는 어떻게 아름다움이 되는가

남들이 일본의 소도시 여행을 이야기할 때도 주로 도쿄와 교토를 오갔던 것 같다. 작은 도시들을 여행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기회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도치기현 바토와 나가노현 가루이자와, 오카야마현 구라시키를 찾았다. 이번에는 이와테현이다. 호텔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브랜드인 아만(Aman)을 창립한 아드리안 제차가 90대의 나이에 새로운 리조트를 선보인 곳이라는 사실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문득 이와테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일본 원작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떠올랐다. 스크린을 채웠던 자연과 느린 삶의 정취가 이곳에서도 숨쉬고 있지 않을까, 자연스레 상상하게 됐다. 역시 도쿄 출장을 틈타 도호쿠 신칸센에 몸을 싣고 모리오카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이와테산을 바라보는 고이와이 목장에 자리한 아즈마 팜 고이와이(AZUMA FARM Koiwai). 아즈마(東)는 동쪽이라는 뜻이다. 더 동쪽으로 향한 여정 끝에 일본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났다.



동쪽의 깊은 숲으로

모리오카역에 도착하자 셔틀을 운전할 기사가 나무 리조트 간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시내를 벗어나 초록빛 들판과 옥수수밭을 지나자 어느새 키 큰 침엽수림 사이로 접어들었다. 목장 표지판을 지나 숲길을 한참 더 달린 끝에야 리조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셔틀에서 내릴 때 작은 나무 발판을 놓아주는 세심함에서부터 이곳의 남다른 환대가 느껴졌다. 풀과 나무 내음이 은은하게 감돌고 숲의 기운이 내려앉은 곳에서, 올봄 문을 연 리조트의 제너럴 매니저(GM) 마자키 히로아키를 만나 농장의 배경 스토리를 들었다.

총면적 3,000ha 규모의 고이와이 목장은 1891년, 일본 철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노우에 마사루의 제안으로 개발되기 시작됐다. 이후 오노와 이와사키 가문이 함께 목장을 일구었으며, 고이와이라는 이름도 창립에 참여한 세 사람의 성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 척박한 땅을 개척해 농업과 낙농의 기반을 마련한 역사가 오늘날의 풍경을 이루고 있다.

광대한 목장의 숲 한쪽, 약 8ha의 목초지에 새로운 숙박 공간을 구상한 인물이 아드리안 제차다. 그는 아만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하야세 후미토모, JR동일본과 협력해 아즈마 팜 고이와이를 탄생시켰다.

마자키 히로아키 GM과 이야기를 나누고 리조트 곳곳을 둘러보다 문득 '재료'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자연이 빚어낸 풍경부터 공간을 이루는 건축 자재,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까지. 아즈마 팜 고이와이를 경험하는 일은 이곳을 이루는 여러 재료를 하나씩 발견해가는 여정이기도 했다.





1 아침 안개가 고요하게 내려앉은 고이와이 숲과 광활한 도호쿠 지방의 대자연 풍경.
2 이와테산을 배경으로 숲과 목초지 사이에 나지막이 자리 잡은 아즈마 팜 고이와이 리조트의 모습.
3 과거 고이와이 농장의 유서 깊은 건축적 특징과 목장 자재의 결을 빌려와 안락함을 더하고, 창밖의 숲 풍경이 아늑하게 어우러진 가든 빌라 객실 내부. 리조트 객실은 가든 빌라(약 22~26평)와 포레스트 빌라(약 20평),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따뜻한 벽난로와 히노키 탕, 숲의 풍경이 어우러져 깊은 휴식을 선사하는 포레스트 스프링스(Forest Springs). 냉온탕과 사우나를 구비했으며 3개의 파빌리온이 있는데, 한 동을 통째로 빌려 쓰는 프로그램도 있다. 작은 온천 시설도 11월 완공 예정이다.
5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일러스트레이터 주나이다(Junaida)의 그림으로 미야자와 겐지 문학의 정수를 담아낸 아트 북 〈이하토보(IHATOVO)〉.
6 미야자와 겐지의 문학적 감성과 텍스트 요소를 담아내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실내 조명 디자인.





느리게 풍경을 느끼는 시간

아즈마 팜 고이와이는 자연 속에 시설을 펼쳐놓기보다, 풍경 사이에 공간을 조심스럽게 배치한 리조트에 가깝다. 라운지 & 리셉션과 메인 다이닝을 중심으로 양쪽에 단층 빌라 24채가 자리하고, 레스토랑 오키비와 사우나를 갖춘 웰빙 공간 포레스트 스프링스가 더해진다. 건물 사이로 초록빛 초원이 너른 품을 펼치고, 그 너머로는 이와테산이 묵묵히 솟아 있다. 멀리서 리조트를 지켜보는 수호신처럼.

다음 날 아침 메인 다이닝의 창가 자리에 앉아 바라본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창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완만한 둔덕이 솟아 있고, 그 위로 풀과 어린 나무가 자라나고 있었다. 뒤편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면서도 사이좋게 들어선 숲이 시야를 채웠다. 둔덕이 시선을 가려준 덕분에 빌라가 자리할 법한 방향에서도 건물보다 자연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고이와이는 일본에서 널리 사랑받는 문호인 미야자와 겐지에게도 특별한 장소였다. 이와테에서 태어난 미야자와는 농업을 공부하고 농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 시인이자 동화 작가다. 리조트 객실마다 놓인 삽화집 〈이하토보(IHATOVO)〉는 그림책 작가 주나이다(Junaida)가 미야자와의 문학 세계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책이다. 미야자와는 1922년 고이와이 농장을 걸으며 보고 느낀 것을 장편시 '고이와이 농장(小岩井農場)'에 담았다.

그의 동화 '주문이 많은 요리점(注文の多い料理店)'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風がどうと吹いてきて、草はざわざわ、木のてっぺんはかさかさ、木はごとごとと鳴りました(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풀은 사락사락, 나뭇잎은 바스락바스락, 나무들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자연을 하나의 풍경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기 다른 존재의 움직임으로 포착하는 감각. 고이와이의 숲에서 있으면 이 문장이 단지 문학적 표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와 발밑의 땅,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감각에 닿기 때문이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은 숲길을 탐색하고,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동물들과 교감하는 일. 아즈마 팜 고이와이에서 자연은 그저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직접 발을 들이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세계다.

이곳에서는 곱고 화려한 색조의 장식을 두른 말을 타고 천천히 산책하는 차구차구 우맛코(チャグチャグ馬コ) 승마 체험도 할 수 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땅이 젖어 있어 이번에는 다음 기회로 미뤘다. 대신 액티비티를 담당하는 외주 코디네이터의 배려로 예정에 없던 목장 방문이 이뤄졌다. 저편에는 소들이 있었고, 말들은 목을 길게 빼고 그쪽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여성 트레이너가 "고이, 고이(来い、来い、이리 와, 이리 와)" 하고 부르는 가운데 차로 말들을 몰자, 말들이 우리 쪽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다. 프랑스산 브르타뉴종과 페르슈롱종 말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탄력도 넘쳤다. 눈앞으로 달려오는 말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목장에 울려 퍼지던 트레이너의 음색, 그 특유의 톤이 긴 여운으로 남았다.

자연의 감각을 공간으로 옮기다

건축가 미우라 시로는 목장의 나무와 목초지의 풀, 자연광을 활용해 고이와이의 풍경과 역사를 공간에 담았다. 설계에 앞서 목장 직원들과 숲에 들어가 건축에 사용할 수령 1백 년이 넘는 적송과 삼나무를 직접 골랐다고 한다. 목장이 오랜 시간 가꾸어온 숲의 나무를 건축 재료로 삼는 일은 이 땅이 지나온 시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이어가는 일이기도 하다. 미우라는 도호쿠 땅의 광활함과 힘, 그리고 이와테를 사랑한 미야자와 겐지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도 공간에 투영하고자 했다.

메인 다이닝에 들어서면 입구의 적송 기둥이 먼저 눈길을 끈다. 고이와이 목장에서 한 세기 넘게 자란 고목이다. 실내 기둥에는 이와테산 밤나무를 사용했고, 천장은 오래된 목장의 우사를 떠올리게 하는 목재 구조로 완성했다. 목초지의 풀이 섞인 흙벽은 표면에 미묘한 질감을 더한다. 이와테산 위로 떠다니는 구름에서 영감을 얻은 조명은 일본 전통 조명 아카리를 떠올리게 한다. 숲과 초원에서 자란 재료가 실내로 이어지면서, 바깥 풍경은 창 너머의 배경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별도의 다이닝 공간 오키비(okibi, 熾火)는 메인 다이닝과는 다른 분위기를 지닌다. 붉은 소나무 기둥과 조몬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벽면, 옻칠로 마감한 사펠레 나무 테이블이 어우러진다. 같은 목장과 지역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재료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공간의 표정이 달라진다.

숲과 목초지 사이에 자리한 객실 가구에는 오크를 중심으로 소나무와 사펠레 등 다양한 목재를 사용했다.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창의 구조다. 미닫이창과 바깥쪽 창을 겹겹이 배치한 구조는 빛과 외부 풍경을 조절하고, 숲과의 거리감에도 변화를 준다. 자연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객실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빛의 감각까지 세심하게 다룬 것이다. 포레스트 스프링스에서는 숲을 바라보며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 별도의 파빌리온 한 동을 통째로 빌려 2시간 동안 가족끼리 오붓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탁 위에서 만나는 이와테

자연과 지역을 경험하는 방식은 식탁으로도 이어진다. 아즈마 팜 고이와이의 다이닝은 고이와이 목장과 이와테를 비롯한 도호쿠 지방의 식재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산리쿠 해안(三陸海岸)의 해산물부터 주변 산에서 얻은 식재료와 제철 채소까지, 지역의 풍경은 계절에 따라 다른 맛으로 식탁에 오른다.

메인 다이닝의 저녁 식사는 코스 요리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선택의 즐거움을 넉넉히 열어둔다. 애피타이저와 디저트 등은 다양한 요리를 실은 왜건으로 제공되고, 메인 요리도 호로호로조(뿔닭)와 이와테 비프, 그날의 생선 등 여러 메뉴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눈앞에 펼쳐진 요리들을 살펴보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니 어느새 거의 모든 메뉴를 하나씩 선택해 일행과 나눠 먹게 됐다. 다음날 저녁, 오키비의 오마카세는 로제 삼페인과 사케 등을 곁들여 맛봤다. 도저히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7 취향에 따라 다채로운 전채를 선택하는 애피타이저 카트를 시작으로 이와테산 소고기와 제철 식재료의 풍미를 선보이는 메인 다이닝 디너 코스.
8 메인 다이닝에서 즐기는 아침 식사. 셰프의 세심한 손길로 고이와이 목장 우유와 버터, 채소 등 지역의 신선한 팜 투 테이블 식재료를 다채롭게 선보이는 다이닝.
9 산리쿠 해안의 신선한 해산물과 제철 식재료를 직화(오키비) 방식으로 구워내는 오마카세 다이닝 요리.
10 광활한 목장에서 펼쳐지는 호스 허딩(horse herding)과 이와테의 전통 말 축제인 차구차구 우맛코(チャグチャグ馬コ)의 유산을 품은 목장의 일상. 리조트 인근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는 뛰어난 설질(파우더 스노)로 유명한 스키 리조트들이 자리해 추후 겨울 시즌 액티비티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11 도쿄역을 설계한 건축가 다쓰노 긴고의 유산인 이와테은행 붉은 벽돌관을 비롯해 난부 철기 주물, 칠기(우루시), 난부 센베이, 완코 소바 등 장인 정신이 서린 오랜 노포가 이어지는 모리오카 공예 거리의 풍경. 아즈마 팜 고이와이에서는 이 지역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모리오카 공예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12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고이와이의 비밀 숲을 전용 가이드와 함께 탐험하고, 숲속에서 프라이빗 피크닉을 즐기는 네이처 워크(Nature Walk) 프로그램.

※ 1~4, 6, 9, 12 이미지 제공_ 아즈마 팜 고이와이(AZUMA FARM Koiwai)
※ 5, 7, 8, 10, 11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 아즈마 팜 고이와이 공식 홈페이지 azumafarmkoiwai.com



아침 식탁에서는 고이와이 목장의 우유가 인상적이었다. 180ml 유리병에 담겨 나온 우유는 신선하고 고소해, 간만에 커피를 넣지 않고 그대로 마셨다. 빵에 곁들이는 잼도 배 잼과 애플 버터 잼 등 날마다 달라 소소한 즐거움을 더했다. 직원들은 요리에 사용한 재료와 조리법을 세심하게 설명했다. 평소 즐겨 먹지 않는 클램 차우더도 지금껏 맛본 것 중 손꼽을 만큼 인상적이라고 말하자, 한 직원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기뻐했다. 지역의 먹거리를 소개하고 그 맛을 알아봐주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모습에 땅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총괄 셰프 오야마 요시타카(小山良孝)가 중시하는 원칙은 '土産適法'이다. 계절과 재료의 상태에 맞춰 가장 알맞은 조리법을 찾는다는 뜻이다. 재료에는 정직하되 조리법에는 유연한 태도. 그렇게 이와테의 식재료는 한 끼의 맛을 넘어 그 땅을 경험하는 방식이 된다.

손으로 빚은 한 그릇의 정감

여행의 기억은 때로 누군가가 건넨 작은 배려로 완성된다. 이곳에서 만난 힛쓰미(ひっつみ)가 그랬다.

한국인 배우 심형탁과 일본인 아내 사야의 아들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음식 이야기로 이어졌다. 사야의 고향 음식인 호토(ほうとう)는 밀가루 면과 채소를 된장 국물에 끓여 먹는 야마나시현의 향토 음식이다. 호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쿠타 부주방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지역에는 호토는 없지만 힛쓰미가 있지요."

힛쓰미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조금씩 떼어 국물에 넣고 끓이는 이와테의 향토 음식이다. 만드는 방식도 생김새도 한국의 수제비와 거의 같다. 수제비를 먹은 지 꽤 오래된 터라 반가움이 절로 일었다. 다음날, 떠나기 전 일정표에는 없던 점심 식탁에 닭고기를 넣은 정갈한 수제비 한 그릇이 놓였다. 전날 나눈 음식 이야기를 기억한 기쿠타 부주방장이 내어준 다정한 배려였다. 한국에서는 수제비에 감자를 넣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맑은 국물을 살리기 위해 감자를 넣지 않는다고 한다. 호토에서 힛쓰미로, 다시 수제비로 이어진 대화는 정감 어린 한 끼로 돌아왔다. 자연이 내어주는 재료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세심하게 다루며 사람을 정성껏 대하는 마음. 아즈마 팜 고이와이에서 만난 아름다움은 그런 사람들의 손길에도 담겨 있었다.

글 **고성연**(고이와이 현지 취재)



시드니에서 경험하는 균형 잡힌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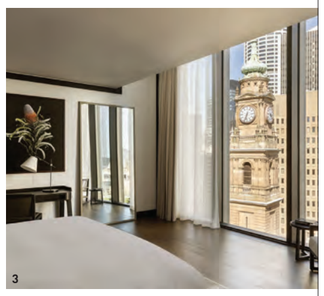
도시와 자연 사이에서 회복하는 몸과 마음


1

눈부신 해안과 광활한 자연, 일상 곳곳에 스며든 웰니스 문화.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자연의 고요함을 오가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을 소개한다.

아름다운 자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호주.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품은 빌딩 숲과 천혜의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 시드니로 떠났다. 시드니에 처음 발을 디딘 날, 하늘은 다소 흐렸고 봄을 앞둔 계절임에도 바람은 제법 차가웠다. 낯선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봄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지만, 예상보다 쌀쌀한 날씨에 조금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다음 날부터 기온이 오르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앞으로 펼쳐질 화창한 시드니의 풍경을 기대하며 공항을 나섰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동차 행렬 사이를 지나 숙소로 향하는 길, 문득 이곳 사람들의 일상이 궁금해졌다. 한국보다 약 77배 넓은 국토에 인구는 절반을 조금 넘는 나라. 광활한 자연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낼까. 이곳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일과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한다. 높은 빌딩 사이를 지나자 시드니의 오래된 골목과 건물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그 사이에 자리한 작은 상점, 거리를 따라 이어지는 이국적인 풍경은 도시 구석구석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싶게 만들었다. 6박 8일간의 여정을 통해 나 역시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시드니에서의 여정은 그렇게 작은 기대와 호기심 속에서 시작됐다. 호텔에서 누리는 온전한 휴식부터 자연이 선사하는 여유, 몸과 마음을 채우는 미식까지. 호주에서 마주한 웰니스의 다채로운 순간을 하나씩 풀어본다.


2


3

시드니의 호텔에서 찾은 웰니스

시드니에서의 첫 번째 숙소는 밀러스 포인트에 자리한 더 랭햄 시드니(The Langham, Sydney). 시드니의 주요 명소와 가까운 이곳은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럭셔리 호텔이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에 들어서니 널찍한 공간과 따스한 조명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호텔 내에는 옵저버토리 바(Observatory Bar)와 키친스 온 켄트(Kitchens on Kent) 등 다채로운 다이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눈여겨볼 곳은 호텔이 자랑하는 약 20m 길이의 실내 온수 수영장이다. 별을 수놓은 듯한 천장 장식과 우아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이곳에 머문다면 꼭 한번 경험해볼 만하다. 또 다른 웰니스 호텔은 문화유산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조성한 카펠라 시드니(Capella Sydney)다. 고전적인 건축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이곳은 도심 한가운데서 여유로운 휴식을 누리기에 제격이다. 특히 6층에 자리한 아우리가 스파(Auriga Spa)와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가 인상적이다.

자연 속에서 배우는 여유

시드니의 자연과 애보리진(Aborigine)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로열 보태닉 가든 시드니(Royal Botanic Garden Sydney)에서 부시 터커(bush tucker) 투어에 참여했다. 호주 원주민의 음식 문화와 토착 식재료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정원에 자라는 다양한 식물의 열매와 잎을 오래전부터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배우고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시드니 하버에서 경험한 수상 사우나와 콜드 플런지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다. 웰니스 어플로트(Wellness Afloat)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에코 크루즈를 타고 바다로 나가 즐기는 프라이빗 사우나다. 따뜻한 사우나에서 몸을 데운 뒤 차가운 바다에 뛰어든 순간, 온몸의 감각이 새롭게 깨어나는 듯했다. 뜨거운 사우나와 차가운 바다를 오가며 즐긴 이색적인 경험은 수많은 사우나 경험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기억으로 남았다. 셋째 날에는 페리를 타고 맨리 비치(Manly Beach)로 향했다. 서핑과 패들보드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생처음 SUP 요가에 도전했다. 이날 체험은 현지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로 모션(Flow mOcea)과 함께했다. 흔들리는 패들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고 노를 저어 자리를 잡은 뒤, 천천히 요가 동작을 이어갔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걱정이 어느새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처럼 느껴졌다.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호주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부러워졌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미식

호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원주민, 애보리진의 식문화에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의 음식 문화가 더해진 나라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만큼 시드니의 미식 역시 다채롭다. 각국의 전통 요리는 물론, 호주 고유의 식재료와 여러 나라의 조리법을 결합한 창의적인 요리까지 경험할 수 있다. 시드니에서의 첫 저녁은 하버 브리지와 오페라하우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카페 시드니(Café Sydney)에서 즐겼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하버 전망과 함께 맛보는 호주 요리는 여행의 첫인상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신선한 생굴. 한국에서는 선뜻 시도하지 못했던 음식이 이토록 맛있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스테이크로만 익숙했던 호주 미식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로열 보태닉 가든에서 부시 터커 투어를 마친 뒤에는 토착 식재료를 활용하는 보태닉 하우스(Botanic House)에서 점심을 먹었다. 조금 전까지 배웠던 식물들이 접시 위에 올라오다니! 호주 산딸기와 핑거 라임을 활용한 아뮈즈부슈(전채 요리)를 비롯해 베트남 요리에서 영감받은 다채로운 메뉴가 이어졌다. 저녁에는 스테이크로 명성이 높은 마거릿(Margaret)을 찾았다. 셰프가 한국인 방문객을 위해 특별히 구성한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모든 요리는 기존 메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나도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는 스테이크가 인상적이었다. 테라스에서 시드니의 야경과 봄빔의 분위기를 만끽하며 먹은 저녁 식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하다. 셋째 날 맨리 비치에 도착한 뒤 방문한 중식 레스토랑 스탠리(Stanley)에서는 푸짐한 양과 화려한 요리가 어우러진 식사를 즐겼다. 이날 저녁에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아리아 시드니(ARIA Sydney)를 찾았다. 섬세하게 완성한 해산물 요리와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플레이팅은 다음 요리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설레게 했다. 세심한 서비스와 조화롭게 이어지는 코스 구성은 시드니에서의 저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광활한 자연이 선사하는 고요

시드니를 떠나 블루마운틴으로 향하는 길, 약 1시간 30분을 달려 빌핀 사이더 농장(Bilpin Cider Co.)에 들렀다. 현지에서 재배한 사과로 만든 사이더는 도수와 제조 방식에 따라 저마다 다른 풍미를 지녔다. 하나의 과일이 이토록 다채로운 맛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농장의 아늑한 풍경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곳을 방문한다면 사이더와 함께 애플 파이도 꼭 맛보길 권한다. 이후 더 하이드로 마제스틱 블루 마운틴(The Hydro Majestic Blue Mountains)으로 향했다. 메갈롱 밸리의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애프터눈 티, 하이티는 그 자체로 여유로운 오후를 선사했다. 다채로운 색감의 디저트와 차를 음미하며 잠시 발걸음을 늦췄다. 블루 마운틴 숙소는 에코 포인트와 가까운 아더 릴리안펠스 블루 마운틴(Ardour Lilianfels Blue Mountains)이었다. 세 자매봉을 조망할 수 있는 에코 포인트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블루 마운틴의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호텔 내 엘리바 블루 마운틴 스파 & 웰니스(Ēliva Blue Mountains Spa & Wellness)에서는 45분간의 마사지를 받았다. 아보카도, 포도씨, 마카다미아, 살구씨 등 네 가지 베이스 오일과 네 가지 에센셜 오일 블렌드 중 각각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했다. 시원하면서도 포근한 향이 온몸을 감싸고 숙련된 손길이 긴장을 풀어주자 며칠간 쌓인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평소 마사지를 자주 받는 편이지만, 그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사우나와 스팀 룸, 미네랄 풀도 갖추어 충분한 시간을 내서 머물러보길 추천한다. 미스 릴리안(Miss Lilian)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웬트워스 폭포 인근으로 이동해 프라이빗 블루 마운틴 스타게이징(Blue Mountains Stargazin)에 참여했다. 전문 천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남반구의 별자리와 천체를 맨눈과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시간이었다. 고개를 들자 수많은 별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쏟아질 듯 펼쳐진 별빛 아래 가만히 서 있으니 낮 동안 마주한 풍경과는 또 다른 고요함이 찾아왔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스타게이징 외에도 낮에는 태그스터(Tagster) 투어와 시닉 월드(Scenic World) 어트랙션을 통해 블루 마운틴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블루 마운틴에서의 마지막 저녁은 카야 호텔(Kyah Hotel) 내 블라크(BLAQ) 레스토랑에서 즐겼다. 호주의 다채로운 식재료와 요리를 맛보며 이곳에서의 여정을 돌아봤다. 시드니의 활기찬 도심을 벗어나 광활한 자연 속에서 보낸 시간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고요함을 되찾게 해주었다.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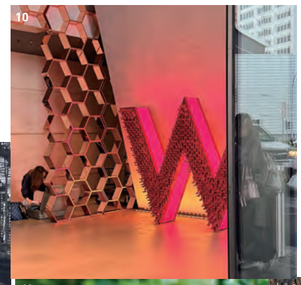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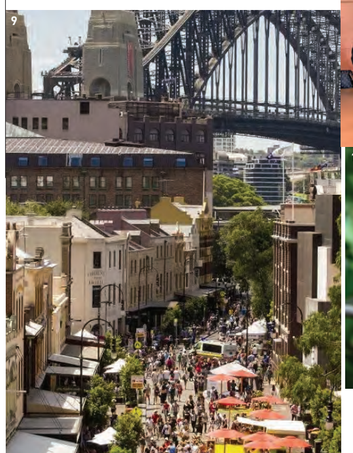

8

6 천문학자의 설명과 함께 남반구의 밤하늘을 관찰하는 스타게이징. 운이 좋으면 달 표면을 직접 촬영하는 특별한 경험도 가능하다.
7 유칼립투스에서 발산되는 오일 성분으로 푸른빛을 띠는 블루 마운틴. 바람이 불면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광활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8 시드니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아리아(ARIA). 현지 산지에서 공수한 신선한 굴이 별미다. 9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록스 마켓. 다양한 수공예 제품을 구경할 수 있으며, 시드니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면 방문해볼 만하다. 10 달링 하버에 자리한 W 시드니. 화려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다채로운 웰니스 시설이 돋보인다. 11 멸종 위기 동물 보호와 번식에도 힘쓰는 시드니 동물원.
※ 6, 7, 9, 11 이미지 제공_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관광청
※ 8, 10 Photo by 박혜원

서 마주한 코알라의 사랑스러운 뒷모습과 숙취에 시달리는 듯 무기력한 캥거루의 표정은 절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점심 식사를 위해 새롭게 문을 연 시드니 피시 마켓(Sydney Fish Market)으로 향했다. 기존 피시 마켓과 마주해 자리한 이곳에 들어서자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한국과 달리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었고, 해산물은 깔끔하게 진열돼 있었다. 특유의 비린내조차 나지 않아 수산 시장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피시 마켓 내 루아 다이닝(Lua Dining)에서는 베트남 요리의 영향을 받은 호주식 메뉴를 맛봤다. 신선한 해산물과 탁 트인 하버 전망이 어우러지는 테라스에서의 식사는 유독 인상적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맛본 해산물 중에서도 가장 신선하게 느껴진 것은 어쩌면 장소가 주는 특별한 분위기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숙소는 달링 하버에 자리한 W 시드니(W Sydney)였다. 호텔 내 어웨이 스파(AWAY Spa)와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다채로운 웰니스 경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어웨이 스파는 습식·건식 사우나부터 여러 방향에서 물줄기가 분사되는 멀티 제트 샤워, 족욕 시설까지 갖추어 취향에 따라 이용하기 좋다. 여정의 마지막 저녁은 호텔 내 비트윈(BTWN) 레스토랑에서 즐겼다. 오픈 키친 너머로 신선한 해산물을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맛보는 음식은 그 과정까지 하나의 미식 경험처럼 느껴졌다.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하루하루가 아쉽게 느껴지는 이곳. 도시의 활기와 자연의 고요함을 오가며 보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계기가 됐다. 언젠가 지친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곳에서의 기억이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되어줄 것 같다. 반복되는 일상에 잠시 쉼표가 필요하다면, 시드니와 블루 마운틴으로 떠나 호주 곳곳에 스며든 여유 속에서 나만의 균형을 되찾아보는건 어떨까.

글 **박혜원**(객원 에디터, 시드니 현지 취재)


10


9


11



Editor's Pick

광채를 더하는 메이크업과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줄 스킨케어, 기분 좋은 향을 전하는 향수와 캔들까지. 찬 바람이 부는 계절, 지금 주목해야 할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KIM YOU TAE**

구찌 뷰티 루즈 아 레브르 매트 #122 엘리자 진저 은은한 레드 & 진저 컬러가 조화를 이루며, 고농축 피그먼트를 함유해 지속력이 높은 것은 물론, 가벼운 마무리감으로 입술을 편안하게 감싸준다. 3.5g 6만3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신정임**

크리스챤 디올 뷰티 홀리데이 디올 포에버 글로우 루미나이저 골드 펄을 가미한 로지 핑크 컬러의 파우더 하이라이터로, 얼굴에 입체감을 더하기 좋다. 6g 10만6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하얀**

CALMING CARE

케어드 PDRN 오트밀크 세럼 크림과 세럼이 같이 들어 있는 듀얼 레이어 제형으로 부드럽게 발리며, 오트 성분과 시카 PDRN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케어해준다. 35ml 3만5천원. 문의 1644-7637
_by 에디터 **신정임**

NEW PERFUME

앳킨슨 1799 미스틱 문라이트 고대 인도 신화 속 사쿤탈라의 사랑 이야기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향수. 프루티 노트와 깊이 있는 우디 향이 어우러지며, 앰버와 통카 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잔향을 남긴다. 100ml 39만7천원. 문의 02-3453-7577
_by 에디터 **신정임**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리커버리 트리트먼트 에센스 점성이 있는 제형으로 바르는 순간 얇은 보호막을 씌우며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함을 선사한다. 200ml 20만원대.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성정민**

로에베 퍼퓸 센티드 캔들 바노피 캐러멜라이징한 바나나를 떠올리게 하는 달콤하고 포근한 향. 쌀쌀한 계절에 실내를 따뜻한 분위기로 채우고 싶을 때 제격이다. 280g 37만7천원. 문의 02-2088-8587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라곰 아쿠아 씨켈프 선세럼 촉촉한 제형이 백탁 현상 없이 피부에 싹 스며든다. 도톰한 수분막을 형성해 건조한 환절기 들뜨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고민일 때 수분 프라이머 대용으로 제격. 50ml 2만6천원. 문의 1577-5729
_by 에디터 **성정민**

HEART BLOSS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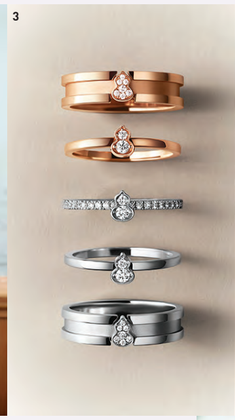
돌체앤가바나 뷰티 마이 디보션 오드 퍼퓸 인텐스 하트 셰이프 보틀과 달콤한 플로럴 향이 매력적인 향수. 은은하게 감도는 부드럽고 따뜻한 잔향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20ml 13만7천원. 문의 02-6905-3470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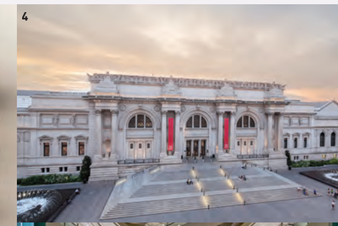
누그레이 헤이지 블러 틴트 #미스티 모브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톤 다운 핑크 컬러. 부드럽게 발리는 매트한 제형 덕에 건조한 계절에도 각질과 입술 주름을 커버하고 균일한 발색을 선사한다. 3.7ml 1만6천원. 문의 070-8810-1984
_by 에디터 **김하얀**

※ 상품 정보는 2026년 9월 현재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howroom

1 로에베 2027 S/S 컬렉션
잭 맥콜로와 라자로 에르난데스가 이끄는 로에베 2027 S/S 컬렉션은 생동감 넘치는 컬러 팔레트와 위트 있는 디자인 변형이 돋보인다. 스포츠웨어의 캐주얼함에 비즈 장식과 가죽, 자수 등 장식적 요소로 익숙한 아이템에 색다른 매력을 불어넣었다.
문의 02-3479-1785

2 루이 비통 2027 남성 스키 컬렉션
루이 비통이 1990년대 스키웨어에서 영감받은 2027 남성 스키 컬렉션을 공개했다. 발수 소재와 방수 및 통풍 기능을 적용한 고기능성 아우터부터 도심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플리스와 니트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문의 02-3432-1854

3 키린 울루 컬렉션
키린이 시그너처 울루(Wulu) 디자인을 적용한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을 공개했다.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울루 모티브에 부드러운 컬러와 섬세한 디테일을 더해 로맨틱한 분위기의 다양한 링을 선보인다.
문의 02-3479-1962

4 바쉐론 콘스탄틴 메트로폴리탄과 함께한 장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바쉐론 콘스탄틴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장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공예 기술을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두 기관의 예술적 유산과 장인 기술을 탐구한 3명의 장인이 각자의 기법과 현대적 감각을 담은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했다.
문의 1877-4306

5 그라프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 팝업
그라프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팝업을 열었다. 브랜드 최초의 유니섹스 컬렉션으로, 다이아몬드의 정교한 커팅과 날카로운 형태를 골드 주얼리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51-745-1761



6 제니스 DEFY 크로노그래프 USM
제니스가 스위스 가구 브랜드 USM과 협업해 자선 경매 '타임포아트'를 위한 'DEFY 크로노그래프 USM'을 제작했다. 미러 폴리싱 처리한 다이얼에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카운터와 젠시안 블루 외곽을 적용해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을 담았다. 37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자체 제작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400'을 장착했으며,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02-3479-1805

7 반클리프 아펠 루도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이 벨트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 특징인 루도 컬렉션의 새로운 디자인 5종을 선보인다. 벽돌을 촘촘히 쌓아 올린 듯한 직사각형 구조와 육각형 모티브가 특징이며, 3가지 골드 컬러에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루비를 각각 조합해 다채로운 색감이 돋보인다. 문의 1877-4128

8 메종 프란시스 커정 젠틀 플루이디티 골드
메종 프란시스 커정이 '젠틀 플루이디티 골드' 라인의 헤어 및 보디 케어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바닐라의 달콤함에 머스크 앰버 우드의 깊이 있는 향이 어우러져 부드럽고 포근한 향조를 완성한다. 매력적이고 따뜻한 향으로, 가을, 겨울 머스트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문의 1644-4490

9 구찌 더 스토어 쇼
구찌가 이번 2027 S/S 밀라노 패션 위크 '더 스토어 쇼'를 통해 멤나가 그리는 브랜드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컬렉션을 선보였다. 실제 매장을 연상시키는 공간에서 펼쳐진 이번 컬렉션은 메종의 승마 헤리티지와 1980~90년대의 화려한 글래머 스타일을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3452-1921

10 아뇨나 코스트 투 코스트 컬렉션
아뇨나가 여행에서 얻는 영감을 시각적이고 감성적인 흐름으로 풀어낸 2027 S/S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코스트 투 코스트'를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캐시미어와 리넨, 실크 등 고급 소재를 바탕으로 여유로운 실루엣과 섬세한 질감을 강조하며, 정제된 휴식의 가치를 표현했다. 문의 02-3449-5942

11 시몬스 온라인 매트리스 체험 존 리뉴얼 오픈
시몬스가 경기도 이천의 복합 문화 공간 '시몬스 테라스' 1층에 위치한 '온라인 매트리스 체험 존'을 리뉴얼 오픈했다. 다양한 사이즈의 매트리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매트리스 내장재 전시를 통해 소재의 안전성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99-8182

12 홈스코치 코리아 유럽연합 X 신세계 테이스트 오브 유럽
유럽연합이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테이스트 오브 유럽(Taste of Europe)' 프로모션을 개최하고, 다채로운 정통 식음료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유럽산 농식품의 품질과 식품 안전성, 정통성,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문의 https://enjoy-its-from-europe.campaign.europa.eu/south-korea/ko









롤렉스가 전하는

오이스터 스토리



ROLEX.COM에서

아이콘의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ROLEX